

SAd.b.3

정신대문제 자료집 I

《수정증보》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정신대문제 자료집 I

《수정증보》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수정증보판을 내면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신대협의회)가 발족된지 벌써 두해째다.

그간 정신대협의회는 정신대 실상 진상조사, 홍보 등을 통해 나름대로 정신대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고, 또한 일본·한국 정부에게는 정신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촉구해왔다.

이 자료는 이러한 활동과정에서 모아진 각종 자료들로서, 제1판은 지난 1991.5.28 “정신대문제에 관한 강연회”를 겨냥해서 발간했었다. 주요내용은 강연과 시화전에 사용된 시모음, 그간의 성명서, 공개서한 그리고 신문모음 등이었다.

강연회 이후 1판은 꾸준히 정신대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찾아서 발간한지 만 8개월이 되는 지금 재판의 필요성이 시급해졌다.

그러나 시일이 지나면서 특히 신문자료 등은 정신대 문제가 현안사안이니만큼 그 시사성이 줄어들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수정은 요구되었고, 정신대협의회의 활동내용도 축적되어 수정증보가 불가피해졌다.

여러 면에서 우리의 역량이 쌓여 질적으로 성숙한 제2집을 발간하기까지 부족하나마 이 수정증보판으로 관심을 가진 이들의 요구에 임하고자 한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길 세삼 부탁드립니다.

1992. 2. 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박순금
이효재
윤정욱

머릿말

해방된지 46년, 허리가 잘린지 46년.

일제 때 애국봉사대 근로봉사대,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14세부터 30대의 이 나라여성들이 종군위안부로 끌려갔다. 10만에서 20만으로 추정되는 그 분들은 지금까지 역사의 암흑속에 묻혀있다.

일제의 "정신대" 정책에서 우리는 일제의 조선식민지정책의 본질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이분들이 이 나라의 명예를 짊어진 이 나라의 주인공이라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까지 정확하게 몇사람이 끌려갔는지, 몇사람이 죽었는지, 몇사람이 귀국했는지, 나머지는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있다. 그런가 하면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정신대" 사실을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지 않고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는 그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설명문의 복사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건네 주는 것을 거절했다. 입으로 설명은 할수있어도 복사물이라도 줄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속았던 강제로건 간에 이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했던 이분들을 우리는 영원히 두번 죽게 할 수 없지 않은가. 역사적인 모든 사실을 규명해서 이제라도 이분들의 고통을 나누어야 할줄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정신대" 사실을 최대한 캐내서 1990년

10월 17일 한국여성단체가 일본정부에 요구한 6개 사항을 받아드리도록 하는 것일줄 안다. 이일은 아직도 되지 않고 있는 일본의 조선침략에 대한 배상문제 전쟁책임문제, 전후처리문제의 일부해결을 담당하는 것이 될줄안다. 그렇게되면 이 나라의 분단문제를 비롯해서 일본 식민지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부문에 큰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한다.

- 우리의 요구 -

1. 일본 정부는 조선인 여성들을 종군위안부로서 강제연행한 사실을 인정할 것.
2. 그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
3. 만행의 전모를 밝힐 것.
4. 희생자들을 위하여 위령비를 세울 것.
5. 생존자와 유족들에게 배상할 것.
6.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역사 교육속에서 이 사실을 가르칠 것.

공동대표 박 순 금
이 효 재
윤 정 옥

그대 조선의 십자가여

장 정 입 (시인)

뉘라서 그대 피묻은 전신을 씻어
그대 찢긴 심장을 기워
온전히 잠들게 하라
조국보다 먼저 짓밟히고
해방보다 먼저 잊혀진
역사의 눈물꽃이여
예능의 밀싹개 군수품으로 능멸된
박꽃 같은 그대
뉘라서 그대 원혼을 잠재울 수 있으리

슈생야에 속아
황국보은 하라는 여성지도자의 연설에 속아
세탁부 재봉사로 떠난, 김서방 박서방의 딸
검정 치마 흰 저고리 순결한 그대는
낮에는 노역 밤에는 위안부로 온몸이 찢기었네

호카이도 오끼나와 타이 파푸아뉴기니에서
하루에도 수백 번 능욕된 그대의 여성 그대의 인권
옷 벗겨 내쫓기고 절벽에서 투신할 때
어머니 어머니
피땀하게 불렀건만
그대 조국도 어미도 아버지 오라비도
그대 제삿밥 한 그릇 없이 오십 년 구천을 헤매었구나

그대 이 땅에 서럽고 아픈 십자가여
짓밟힌 들꽃으로 다시 일어서 피어나
부끄럼에 한스런 우리를 일으키고
배반의 치멸리는 조국을 어루만지는가

치렁한 머리 눈매 순한 열여섯 꽃다운 처녀가 아니라도
이제는 돌아와 편히 쉬소서

우리의 든든한 무릎을 드리리니
 식민지 여성으로 더 이상 능욕되지 않도록
 오늘 평화의 작은 비를 세우리라
 그대는 언제나 순결한 우리의 어머니

이제는 고히 날개를 접고
 이제는 더 이상 해매이지 말고
 편히 쉬소서 편히 쉬소서
 그대 조선의 십자가여
 조선의 눈물꽃이여.

차 례

수정증보판을 내면서	1
제1판 머리말	2
〈바치는 시〉	
그대 조선의 십자가여(강정임)	3
I. 정신대문제에 관한 강연 자료	
(1) 정신대, 무엇이 문제인가(윤정옥 공동대표)	7
(2) 종군위안부 문제와 일본여성(스즈끼 유우코)	14
II. '정신대'원혼 서린 발자취 취재기(윤정옥 공동대표)	20
III. 우리는 정신대문제를 이렇게 풀어왔습니다.	33
(1) 활동일지	33
(2) 피해자 신고현황	36
— 활동모음 —	
(1) 성명서 및 공개서한	
(2) 국회청원서	
(3) 신문자료	
관 련 자 료	

I. 정신대문제에 관한 강연자료*(참고)

(1) 정신대,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알기로 서울에서 정신대문제에 대한 강연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오늘은 이문제에 대해 개괄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즉,

1. 우리가 쉽게 정신대라고 하는 낱말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2. 이 중에서 우리가 정신대라는 말로 표현하는 종군위안부는 중일전쟁과 제2차세계대전중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임무를 강요당했는가.
3. 일본이 패전한 후 이들은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
4. 이들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며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

제1장 정신대의 종류

우리나라가 일본에 침략을 당하기 전에도 우리나라 여성들이 중국으로 성을 제공하기 위해 "공출"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오늘은 일본과의 관계에 국한해서 생각하기로 한다.

1. 일본은 명치시대에 들어서며 백인이 미국 인디안을 속여 북아메리카를 빼앗듯이 아이누에게서 홋카이도(北海道)를 빼앗았다. 이 홋카이도를 개척할 노동력이 필요했다. 또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일본은 이겨서 동해에 면한 시베리아의 벌목권과 그 연안의 어로권을 획득했다. 이 이권을 행사하는데도 노동력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시작한 산업혁명으로 오사카에는 큰 제사(製絲)와 방직(紡織)공장이

윤정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들어섰다. 이렇게해서 홋카이도 개척과 시베리아의 벌목과 그 연안의 고기잡이에 우리나라 남성이 많이 가게 됐는가 하면 오오사카공장에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많이 갔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된 1910년을 전후해서 시작된 것이다.

한편 조선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일본에 갔다. 가서 보니 그들의 임무는 방금 말한 바와같이 일본에 노동력을 팔기 위해 가 있는 조선남성들에게 매춘하는 일이었다. 이 중에서 홋카이도의 길따기, 철도 놓기는 거의 조선남성의 몫이었다. 이 남성들을 위해 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일본기업은 돈을 벌게해 주겠다, 공부하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이들 상대로 매매춘을 강요했다. 그리고 오사카 공장에서 노예와 같은 환경에서 일을 하는 조선여성들에게 좋은 곳을 알선해 주겠노라해서 홋카이도로 데려갔다. 오사카공장보다 못한 곳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조선여성들에게 일본기업은 매매춘을 강요했다. 1931년 만주사변이, 1937년 中日전쟁이, 194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도 여기에 필요한 모든 노동력을 대부분 조선인에게 의지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강제연행된 조선남성 상대로, 나중에는 일본남성 상대로도 조선여성들이 매춘을 강요당했다. 이들 여성중에는 오사카공장에서 간 여성들도 있었다. 이들은 좋은 자리를 소개 시켜준다는 말을 믿고 간 것이었다. 그런데 생명보다도 정조지키는 것이 여성의 미덕이라고 교육받은 이들 여성들 중에는 자살을 하꼬다며(函館)에 있는 다저마즈미 사키(立待岬)라는 절벽에서 바다로 떨어져 자살

* (참고) 이 자료는 지난 1991.5.28 우리 정신대협회가 주최한 '정신대문제에 관한 강연회'의 강연자료이다. 이때 김용림씨의 시화전도 같이 열었는데 특히 강연 내용에 대한 일반인들의 반응이 좋아 다시 전면 우리 자료집에 게재한다.

했다. 너무 많이 죽어서 태평양전쟁말기에는 신문에 실리는 것을 중지시킬정도였다. 지금도 하코다테의 다찌마쓰미사키는 자살의 명소로 알려져 있다.

이들 여성은 정신대로 끌려간 사람들은 아니지만 배후에 일본관이 있어 기업하고 상인이, 일제말기에는 관하고 일본군이 작용하여 기업이나 상인을 통해 조선여성을(상대는 조선남성이 라하더라도) 일본을 위해 강제로 매춘을 시켰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 "정신대"위안부라고 볼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이름 그대로의 근로정신대이다.

여자정신근로령은 칙령으로 1944년 8월에 공포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자애국봉사대, 여자근로봉사대의 이름으로 종군위안부가 되기를 강요받았다. 뿐만아니라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연행되도 종군위안부가 되어야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일제시대 경성일보 1944년 1월 신문에 「절대업자가 정신대를 결성했다.」는 보도를 읽을 수 있다. 이것을 보면 영이 내리기 전에도 정신대가 결성됐고 이 정신대는 절대업자가 결성했다는 점에서 종군위안부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같이 많은 경우에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연행되어 종군위안부가 돼야했다. 또는 군수공장이나 탄광에 가서 노동을 해야했던 정신대원들이 일본감독에게 성을 침탈당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성문제와는 관계없이 근로만 했던 정신대가 있었다. 이들은 대구근처에 있던 방직공장, 규슈(九州)의 오무타와 나가사키에 있던 탄광, 나고야에 있던 미쯔비시 비행기공장등에서 일했다. 우리가 종군위안부라는 뜻으로 정신대라고 할 때 이들에게 상당한 패를 끼친다. 종군위안부였던 분들도 본인의 의사는 결코 아니었지만 정신대로 끌려간 분들 중에는 성문제와는 상관이 없었던 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안다.

3. 여자애국봉사대, 여자근로봉사대
여자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끌려가 매춘을 강요당한 종군위안부이다.

센다가고(千田夏光)씨는 1937년 12월 남경대학살이 있은 후 조선여성을 종군위안부로 연행해 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김일면씨는 일본이 1937년 7월 중일전쟁을 일으키기전 즉 중국 동북부에 있던 관동군이 중국침략을 결정하고 관동군을 강화하면서 조선여성을 종군위안부로 삼을 것을 결정했다고 생각한다. 김씨는 관동군에게는 이미 일본위안부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직업적인 창녀로서 거의가 나이가 많고 성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관동군수뇌부가 군대내의 사기를 돌리고, 앞으로 늘어날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유교교육을 받아 성병이 없을 것이고, 성병에 저항력도 있을 17세~20세 까지의 미혼여성을 연행할 것을 정했었다고 말한다.

이미 말한 바와같이 일본위안부는 본시 매춘이 직업이었다. 이들은 조선여성들과 같이 속거나 강제연행된 경우가 아니다. 이들은 돈을 선불받고 그돈을 갚으면 언제든지 종군위안부를 그만둘 수 있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장교를 상대하였다.

조선여성들은 배불리 하루세끼 흰밥먹고 돈 벌이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간 사람이 많았다. 일의 종류는 군대식당일, 군대의 빨래, 간호원 조수 등이라고 했다. 토지조사로 땅을 뺏기고 일본은행에 돈을 뺏기고, 조선을 쌀공급지로 정하고 일본이 쌀을 가져갔기 때문에 조선사람은 쌀농사를 지어도 밥을 먹을 수 없었다. 이런상황에서 「흰밥을 배불리 먹고 돈을 번다」는 말은 충분히 유혹적이었다.

중국본토에서 전쟁이 확대되고 태평양전쟁이 일어나면서는 감언으로 꼬이면서 딸같은 소작인을 위협하거나, 딸을 안내놓으면 아버지나 오빠를 징용하겠다고 위협해서 끌고갔다. 1944년 무렵부터는 밭에서, 길에서, 공장에서, 우

물가에서, 집에 들어가 짐승끌어가듯 사냥해갔다.

이렇게 끌려간 여성들은 중국으로 가는 기차속에서, 태평양 섬으로 가는 배속에서 강간을 당하곤 했다. 그래서 달리는 기차에서, 배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이런 일이 일어난 후부터는 여성들에게 쇠고랑을 채우기로 했다고 한다.

금년 3월 일본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 종군위안부는 전쟁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나가노현(長野縣) 마쓰시로(松代)大本營(大本營)의 지하호를 파는 일을 맡았던 일본육군을 위해 마쓰시로에 위안소가 하나 있었다. 또 지바현(千葉縣) 가시와시(柏市)와 나가레야마시(流山市)에 비행장건설을 담당했던 군인들을 위해서 위안소가 셋 있었다고 한다.

지금 남아있는 곳은 이중의 하나였다. 내가 본 곳은 마쓰시로와가시와시의 위안소 두군데 뿐이지만 이 경우로 미루어 보아 일본본토에도 일본군이 일을 맡아 한 곳에는 다른 곳에도 위안소가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제2장 종군위안부

아소 데쓰오 군의 '麻生徹男軍醫'가 사진으로 찍은 "위안소 규정"의 일부를 보면 위안소 안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은 30분이고,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자는 여자를 가까이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일선에서 후방으로 잠시 이동된 부대를 맞은 경우, 아니면 위안부들이 트럭으로 일선을 순방하는 경우같은 때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군인들이 10분을 기다리지 못했다고 한다.

1. 우리나라에서도 알려진 배봉기 할머니가 있던 오키나와(沖繩)의 도카시(渡嘉敷)섬의 경우는 다른 지역의 경우에 비하면 상중상이라 말할 수 있다. 5년 3월 미군의 대공습이시

작하면서 사태는 악화했으나 인근에 있는 자마미, 아까섬과 함께 작은 섬에 7명씩의 위안부가 있어 태평양의 다른 섬에 비하면 수월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2. 우리나라에도 보도된 바가 있는 지바현(千葉縣) 다테야마시(館山市) 가니다무라에 있는 시로다(城田) 스텝코는 "군인들을 위해" 위안부가 되었으나 계속해서 들어오는 군인들이 너무 미워 목을 졸라 죽이고 싶은 충동을 한두번 가져본 것이 아니라고 나에게 증언했다. 중국 동북부에 있던 한 일본위안부는 65명까지는 세웠으나 기절을 해서 그후 몇명이 지나갔는지 알 수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오키나와의 한 창녀는 위안부가 되기를 거절한 여성인데 한 조선여성이 공중변소같은 위안소에서 하루 100명을 상대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이런 경험을 하고 시로다 스텝코가 패전후 귀국했을 때 매독균이 척추에 들어 죽을 줄 알았다. 일본위안부들은 패전후 귀국까지는 시켜주었다. 그러나 남성군인들은 연금이다, 보상이다하는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황군(皇軍)을 위해 봉사한 자기네들에게는 연금이나 보상은 물론 의료보험혜택도 없었다. 병으로 죽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 시로다는 죽기 전에 한마디 하리라고 생각해서 자신이 종군위안부였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말한 것이다.

중국으로 갔던 위안부들 중에는 태평양섬으로 갔던 위안부의 경우와 다른 경험을 한 여성들이 있다. 전쟁이 길어지고 지역이 넓어지면서 군인들의 성적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군복을 입고 트럭을 타고 전선을 순회해야 했다. 최전선을 트럭으로 다녀야하니 사람의 눈을 피해 군복을 입어야 했다고 한다. 이때 위안부들은 잘 시간도 먹을 시간도 없어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 트럭속에서 던져주는 주먹밥을 먹고 잤다고 한다.

3. 위안부가 전쟁에 참가한 경우를 소개한다. 태평양의 파라오섬의 경우이다. 상륙전을

버리고 있는 미군에게 언덕 한곳에서 끝까지 기관총을 쏘는 사람이 있었다. 드디어 이 군인도 사격되어 올라가서 보니 이 군인은 여성이었다. 미군은 일본군이 여성군인을 데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어 알아보니 이 군인은 조선인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조선위안부의 동기가 무엇이던 간에 일본패전 직전에는 위안부들이 그 상황에 따라 무엇이든 했고 심지어 군복을 입고 전투에 참여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위안부들이 상대로 해야했던 일본군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특히 중국으로 갔던 여성들의 고통이 심했다고 생각되어 중국의 경우를 예로 들겠다.

중국 경우의 특징은 식량을 현지에서 조달해야 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지 국민에게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약탈해야 했다. 따라서 일본군대의 분위기는 살기등등했다. 여기에 음탕성 없고 잔인한 상부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학대받는 일반 종병의 화풀이는 자연히 조선위안부들에게 돌아갔다. 그런데 이 군인들은 잔인함과 용감함을 혼돈하고 있었다. 이런 군인을 중국전쟁 초기에는 원칙적으로 17세부터 20세까지의 미혼여성들이 상대를 해야 했다. 그러나 태평양전쟁이 나면서 전선이 중국본토에서 태평양의 많은 섬들까지 확대되니 14세부터 30세 이상의 애기엄마까지 눈에 띄이는 대로 트럭에 실려갔다. 지금 태국에 사는 노수복 할머니는 부산근처 우물가에서 18세때 잡혀간 것이다.

이렇게 끌려간 위안부들은 지역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었지만 먹지 못하고 너무 많은 남성을 대하다보니 폐결핵, 변비, 각종 부인병, 그리고 각종 성병에 걸렸다. 그리고 정신병환자가 많이 생긴 모양이었다.

사람에 따라서는 도저히 매춘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들에게는 히로뽕을 투약했다고 한다. 히로뽕은 19, 20세의 가미가제(神風) 특공대에게도 사용했다는 말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말썽이 되고 있는 히로뽕은 전쟁당시 징용갔던 남성중에 히로뽕제조에 종사했던 사람이 배워서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애기가 빗나가는 감이 있으나 가미가제 특공대는 옥쇄(玉碎)하러 나가기전에 무조건 위안소에 보내졌다고 한다. 위안소에서 만난 조선위안부, 대부분의 경우 어린 소녀와 어린 일본소년들은 나라를 초월해서 자기들의 운명을 슬퍼했던 모양이었다. 소녀들은 다음날 돌아오지 않는 소년들의 이름을 써서 신위를 만들어 매일 아침 그들의 명복을 빌었다고 한다.

제3장 종군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패전후의 처리

일본의 종군위안부정책에 있어 제일 문제되는 점은 패전후에 위안부들에 대한 행위이다.

1. 중국 한구(漢口) 위안소의 경우와 같이 귀국시킨 경우이다. 중국 각지에 있던 징병, 학도병, 징용부와 함께 상하이에 집결시켜 귀국시킨 경우이다.

애기가 좀 길어지는 감이 있으나 작년 10월 17일 한국의 여성단체가 일본과 한국정부에 공개서한을 낸 보도를 읽은 한 한국남성이 증언해준 이야기를 소개 하기로 한다. 이 사람은 징병되어 중국으로 갔던 것이다. 일본의 패전후 상하이에서 귀국선을 기다리고 있는 기간에 상하이에 있는 조선 술집을 찾아 다녔다. 그곳에는 한 20개소 있었는데 한곳에 ~5명씩 젊은 여성들이 있었다. 이상한 것은 그 여성들이 하나같이 병든 모양으로 거므스러하고 기운이 없어 보이고 얼굴에는 벌레 쏘인양 빨갛게 부풀어오른 것과 시일이 지나 딱지가 앉은 것이 있었다고 한다. 너무 이상해서 물으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몸이 좀 나쁠뿐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예상외로 귀국선이 늦어져 기다리는 동안 이들 중에 한 여인을 좀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여성에게 들은 얘기는 다음과 같다. 그들은 한구위안소에 있던 위안부들이다. 그들은 하나같이 성병을 옮은 것이다. 위안소에 있을 때에는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전쟁이 끝나니 치료를 받지 못해 늘려있던 성병이 밖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었다.

드디어 귀국선이 와서 승선할때 조선남성들은 전부 좋아라고 승선하는데 대부분의 위안부들은 승선하지 않았다. 소수의 여성들이 배에 올랐을 뿐이다. 부산에 도착했을 때 상륙수속을 받기 위해 배안에서 하루밤을 지내야 했다. 이때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고 배를 탄 소수의 위안부중 2명가량이 바다에 몸을 던진 것이다. 부모형제가 자기들을 받아주지 않으리라 생각했던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자신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들이 아니었을까. 국내에서나 그외에서나 그들은 오늘까지 왜 이렇게 나와주지 않는가. 우리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가.

2. 일본군이 조선위안부를 현지에서 버린 경우이다. 일본군은 패전의 소식을 일본위안부에게는 알렸다. 도주할 때 함께 도주했고 배를 탈 때는 간호원조수라는 신분을 만들어 귀국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조선위안부에게는 패전의 소식을 알리지 않고 그곳이 어디이던간에 버린 경우가 적지 않은 모양이다.

사할린의 경우를 예로 들겠다. 8월 어느날이었다. 조선인위안부들은 주위가 너무 조용하고 무엇인지 몰라도 이상하다고 느꼈다. 위안소를 지키는 사람도 없고 거리에 사람도 없다. 심상치 않다고 생각한 그들은 역을 향해 달렸다. 역에 와보니 기차에 군인과 그들의 가족과 일본인 위안부와 모든 일본사람들이 가득 타고 있었다. 기차는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조선인위안부중 몇이 기차앞으로 뛰어가 두손을 들고 정거해 달라고 했을 때 기차는 그들을 치고 속력을 내었다. 저들의 피는 차체에 튀었다.

내가 읽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금년 3월

도쿄에 가서 사할린출신 중의원의원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그곳에 있던 조선인 위안부중 얼마는 불에 타죽었다고 한다. 그리고도 현재 많은 수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3. 일본군이 조선위안부를 죽인 경우이다. 미군의 공습을 피한다던지하는 구실을 만들어 굴이나 참호에 들어가게 해서 폭파시키거나 사살해 죽인 경우가 있다. 지난 3월 지바겐 가시와시에 있는 위안소를 찾았을 때 라바울에 통신병으로 있었다는 일본남성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패전후 조선위안부 200명을 잠수함에 싣고 기뢰에 부딪히게 해서 전원 죽인 일이 있다고 했다.

제4장 결 론

일본의 소위 "천황"이라고 불리우는 일왕은 일본국가의 가부장(家父長)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가부장인 일왕은 "황군" 즉 일본군인을 "적자(赤子) 나아가 일왕의 "팔과 다리"라고 불렀다. 다시 말해서 부자간의 관계, 나아가 일제라고 볼 수 있다. 제도상으로도 일본군은 일왕에게 직속되어 있다. 일왕이 일본군의 총지휘자요 총책임을 갖는 총통수이다. 이런 관계에 있는 일본군은 군안에 절대로 여성을 둘 수 없게 되어있다. 그러나 어느나라 군대보다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성욕처리의 수단으로서 여성을 필요로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부장제의 여성천시 사상을 동원해서 여성을 물건 내지 그 이하로 취급해서 목적 달성을 한 것이다.

이와같은 사상에서 나온 일왕과 일본군에 관계였기 때문에 종군위안부는 "천황"이라고 불리는 일왕이 "황군"이라고 불린 일본군에게 "하사품"(下賜品)이라고 해서 주어진 것이다. 즉 일왕이 일본군에게 자비로써 내린 물건이었다. 물건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일선에 수송할 때는 사람 하나를 탄환 한 개씩 등으로 서류를

꾸렸다고 한다. 따라서 연합군에게 폭격을 받았을 때 군견과 군마는 몇마리가 죽었는지 알 수 있어도 중군위안부는 몇사람이 죽었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한다. 임무지에서는 물건이하의 취급을 받았다. 산부인과 의사였던 아소군의 (麻生軍醫)는 그의 「화류병의 적극적예방법」이라는 보고서에서 “군용특수위안소는 향락의 장소가 아니고 위생적인 공중변소인 까닭에,”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람에게 있어 없어서는 안되나 우리가 제일 천시하는 곳, 그것도 현대 화장실이 아니라 재래식 변소, 그중에서도 한 가정용이 아니라 문사람이 배설물을 쏟아놓고 지나가는 공중변소 취급을 위안부들은 받은 것이다.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되는 소모품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며 자지도 못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100명까지도 일본군인을 상대해야 했다. 군인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병이 나면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를 기다려서 병원에 갖다 놓았다고 한다.

우리는 중군위안부정책에서 일왕을 가부로 앉힌 일본의 식민지정책의 본질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토지신고제와 화폐개혁으로 땅과 돈을 빼앗아 사람이 살지 못하게하고, 일본어상용과 신사참배로 말과 종교를 뺏아 조선의 얼을 뺏고, 창씨개명 시키므로써 이름을 앗아가 조선사람으로서의 자아를 잃게 했다.

내선결혼을 장려하므로써 생리적으로도 민족성을 잃게하려고 젊은 남성을 징용, 징병, 학도병으로 끌고가고 젊은 여성을 정신대와 중군위안부로 끌고가서 민족희망책을 썼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이미 1921년 6월에 김준연(金俊淵) 법학사(法學士)가 「중앙법률신보」(中央法律申報)에 실린 논문에 발표되었다. 그의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이남에서만 물핀증독자가 1만명이상이었다. 그는 당시의 아편과 물핀에 대한 법을 다음 같이 소개한다.

아편을 함부로 팔거나 준 사람은 6개월이상 7년이하의 징역,

물핀을 함부로 팔거나 준 사람은 3개월이하의 금고 또는 500원이하의 벌금,

아편을 피운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물핀을 주사 맞은자는 무벌(無罰),이다.

아편을 피우는 습관이 있는 대만과 중국에서 일본은 겉으로는 아편을 금하는 척 하면서 한쪽에 아편흡연소를 두고 노동의 임금대신 아편을 주므로서 관(官)이 장사를 하고 대만인과 중국인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파괴시켰다. 아편을 피우는 습관이 없고 아편을 경계하는 경향이 있는 조선에서 일본은 그것의 위험성을 모르는 물핀을 이용한 것이다. 김준연은 이는 문물 이와같이 끌었다고 있다. “일본정부는 설마 이와같은 법으로 인정(仁政)을 자랑하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일본은 패전과 더불어 조선사람은 일본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위안소의 규정에 의하면 한사람이 위안소안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30분이오 반드시 「돌격 일번」(突擊一番)이라고 불리는 콘돔을 착용해야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시간 기다려 10분만에 나와야하는 경우가 허다 했다. 따라서 콘돔을 착용할 시간이 없거나 착용해도 물진이 너무 거칠었다. 이들이 이와같은 상황에서 모은 군표는 휴지가 되었다. 이들의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물질적인 손해를 어떻게 배상받아야 할 것인가.

일본은 1991년에 이르는 지금까지 조금도 침략전쟁을 일으킨데 대해 뉘우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전쟁범죄가 높을 수록 연금이 많은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1990년 6월 일본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정부측은 중군위안부 사실에 대해 정부와 일본군대는 책임도 관계도 없다는 뜻으로 답변하며 민간업자의 소행으로 돌렸다. 이에 한국여성단체는 6개항에 걸쳐 우리의 요구를 제시하는 공개서한을 가이후총리

에게 보낸바 있다. 일본측에서 답변이 없자 금년 3월까지 우리는 2차례 독촉장을 띄웠다. 한편 지난 4월 1일 일본 정부는 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 세번째로 중군위안부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런일이 있던 후 협의회에서는 지난 4월 24일 주한일본대사관에서 우리가 띄운 서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그들의 설명으로는 우리의 공개서한을 받고 조사한바에 의하면 일본정부는 우리가 요구사항 제1로 요구한 “정신대사실을 인정할 것”을 받아드릴 아무런 증거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과도 할 수 없고, 만행을 공개할 수 없고, 비(碑)도 세울수 없는 것이다. 배상은 1965는 한일협정으로 정리됐고, 역사교육으로 말하면 일본은 과거 아시아 여러나라를 침략한데 대해 마음아프게 생각하므로 이런 사실을 지금까지도 그랬으나 앞으로도 역사교과서에 반영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세차례에 걸친 서한에 대한 답변 혹은 회답이 아니라 우리의 서한을 받고 조사한 일본정부의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협의회에 속한 여러 단체에 되도록 정확하게 전달할 의무가 있으니 그 설명을 복사해 줄 수 없느냐고 물었더니 본국정부의 지시가 있어 입으로 설명은 할 수 있어도 복사물은 줄 수 없다는 답이었다.

이와같이 한일관계에 있어 식민지문제, 전쟁책임, 전후처리는 전혀 정리가 돼 있지 않다. 침략에 대해 뉘우치지 않고 있는데 될 수가

없지 않은가. 대표적으로 분단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오늘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분단에 있는데 분단의 애초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일본의 다케무라 켄이찌(竹村健一)라는 사람은 우리가 통일을 하면 자기들에게 한이 많기 때문에 일본을 침략할 것이라고 강연한 바 있다. 이사람과 같이 우리의 통일을 원치 않는 사람이 이 사람 한사람 뿐일까. 우리의 정치지도자들의 일본에 대한 태도와 분단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가. 지금까지 생각해 본 바와같이 정신대문제에서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정책의 골수를 파악할 수 있다.

한민족인 우리가 분단으로 인해 정치적 문제로 부터 사사로운 개인에 문제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바로 일본 침략의 결과가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줄 안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 한국여성들은 우리의 할머니, 어머니들을 두번 죽이지 않기 위해, 우리의 딸과 손녀가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정신대문제 즉 중군위안부문제를 규명해서 일본에게 요구한 6개항을 받아 들이도록 해야 하겠다. 이일을 하기위해 일본에 있는 양심 세력과 우리와 같은 입장을 가지는 한국 남성들의 협력을 얻어 정신대할머니들이 더욱 건강이 나빠지기전에 일을 서둘러야 할줄안다.

(2) 종군 위안문제와 일본여성

머릿말

조선인 종군위안부문제(「정신대」문제)는 우리들 일본여성에게도 실로 내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이것이 「여성문제」의 근본적인 것이라는 면에서입니다. 둘째로는 천황·천황제국가가 범한 최대의 죄과이면서도 최고 책임자였던 천황 히로히토를 비롯하여 역대 자민당 정부는 아무런 사죄와 보상을 하지 않은채 방치 해 왔습니다. 이것은 돌이켜 보면 우리들 일본인민의 도덕성을 극히 저하시켰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본여성으로 이 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하나는 권력에 의해 빼앗겨온 여성의 성을 되찾는 일이며 또 하나는 자기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극히 당연한 일을 함으로서 인간성을 복원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1. 「황군」과 종군위안부

「황군」은 아시다시피 천황의 군대라는 뜻이며 지난 시기 일본군의 호칭입니다. 「대일본제국헌법」(1889년 공포, 1946년 일본국헌법 공포까지 효력이 있었습니다)하의 천황은 실로 모든 통치권의 총람자이며 육해군의 최고 지위에 놓여진 「대원수」였습니다. 모든 일본국민은 천황의 「신하」이며 천황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강요 당했습니다. 국민은 거주나 주거의 자유도 제한 되었고 사상, 언론, 신앙의 자유는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대일본제국 헌법속에

鈴木裕子

(스즈키 유우코: 일본여성사연구자)

있는 대원수천황의 「대권」을 인용해 봅시다.

제11조 천황은 육해군을 통수한다.

제12조 천황은 육해군의 편성 및 상비병역을 정한다.

제13조 천황은 전쟁을 선포하고 화합을 강구하며 제반조약을 체결한다.

제14조 천황은 계엄을 선포한다.

천황 대권이 어느만큼 거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柳条湖사건(1931년 9월 18일 발발. 당시 일본 측 호칭은 「만주사변」)으로 시작하여 45년 8월 15일의 일본패전에 의해 종료한 「소화(昭和) 15년전쟁」은 이러한 거대한 통치권, 통수권을 갖고 있었던 소화천황 히로히토의 이름으로 시작되고 추진된 전쟁이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군위안부문제도 천황의 존재를 빼고 논할 수는 없습니다. 천황의 「적자(赤子)」로 여겨졌던 병사들은 일銭오厘의 염서 한장으로 가족의 곁을 떠나 그 광대한 중국대륙으로 보내졌으며 또 태평양전쟁 개시(41년 12월)후에는 머나먼 남방전선에 까지 보내지면서 「천황폐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라고 교육을 받고 싸움으로써 많은 병사들(그것도 하급병사)이 죽어 갔습니다.

당시 구호로 외친 「오족협화(五族協和)」 「동아신질서」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의 건설 심지어는 「팔괘일우(八紘一宇)」를 위한 「성전(聖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돌이켜 보았을 때 천황과 천황제관료, 천황제군부등 일본 지배층의 야망에 의한 침략전쟁이었다는 것이 분명하지만, 오랫동안 천황숭배의 「황국민교

육」을 받아들인 일본인민은 그러한 선동을 쉽게 받아들여 침략의 첩병으로 변해갔습니다.

침략전쟁이라고는 차마 생각지도 못했던 병사들은 타국과 타민족을 짓밟고 그들의 토지와 집, 그리고 생명까지도 용서없이 빼앗았습니다.

이것이 「성전」을 외친 천황의 군대 즉 황군이라고 불려진 일본군의 실제 모습이며 그 잔혹한 병사들이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이었다는 사실에 심통하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황군은 표면상으로는 충실하고 용감한 것으로 유명했지만 내부적인 실정은 상하의 계급차가 매우 엄격한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중층사회(中層社會)이며 동시에 그 저변에는 불만 불평이 쌓이고 있었다고 합니다(자료①). 즉 군대는 차별이 중층화하고 있었던 그 당시 일본 사회의 축도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자기보다 한 계급위의 上官이라도 상관의 명령은 천황의 명령과 다름없으며, 그 명령이 얼마나 부조리한 것이라 할지라도 상관인 이상 절대 복종을 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항변하거나 반항적 태도를 하면 용서없이 반죽임을 당했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구조의 군대였기 때문에 병사의 불평 불만을 해소하고 적 앞에서 도망치는 것을 방지하고 몇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전쟁을 견디 나가기 위한 조치로서 종군위안부 정책을 쓴 것입니다.

위안부들은 대의 명분적으로는 병사들의 「전의 교양」을 위해서 가장 직접적으로는 병사들의 불평 불만의 「폭발」예방을 위해서 또 「성병 예방」 「강간예방」을 위해서 「황군장병들에게 주어진 선물」(당시 육군군의소위 아소데즈오(麻生徹男)의 上申書 「화류병의 적극적예방법」(1939년 6월)의 한구절)이었던 것입니다(자료②).

2. 천황·천황제와 종군위안부, 그리고 전후의 「팡팡·걸」(매춘부)

전쟁터에 끌려간 위안부들 중 일본인 여성의 경우는 창부(娼婦)가 많았습니다. 그녀들에게는 「나라를 위한 마지막 봉사」 「천황폐하를 위하여」라는 문구가 쓰여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상기되는 것은 1945년 8월 15일의 일본패전으로 내무부(구내무부관료의 힘은 현재 보수정권하에서도 여전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가 즉시 행한 「조치」입니다.

패전으로 부터 3일이 지난 8월 18일, 내무성은 경보국장의 이름으로 「외국군주둔지의 위안 시설에 관한」건의 통첩을 냈습니다. 그것은 「성적위안」을 포함한 「외국주둔군 위안시설」의 설치와 정비를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정비요강」의 3,4항을 인용해 봅시다.

3. 경찰서장은 아래 영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설비의 급속한 보충을 기도한다.

성적위안시설

음식시설

오락장

4. 영업에 필요한 부녀자는 예기(藝妓), 공장(公娼), 사창(私娼), 여급(女給), 작부(酌婦) 상습 밀매음범자 등을 우선적으로 여기에 종사시킨다.

오끼나와 전(1945년 ~6월)이 시작되기 전에 많은 조선인 종군위안부들이 오끼나와에 배치되는 황군과 함께 끌려 왔는데, 그것을 알게 된 현지 여자 청년단장은 군에 위안소설치를 취소하도록 당부하러 간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측으로부터 「이것은 현지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것이라고 설득 당하여 돌아왔다고 합니다.

전후의 소위 「팡팡·걸」(매춘부)들도 이것과 같은 수법으로 「일반부녀자」를 점령군으로부터 보호한다고 하면서, 일본 지배층이 또다시 여성의 성을 희생시키고 점령군(미군)에게 비굴하게 굴며 실제로는 자기들의 안전을 도모한 것입니다.

「일본내지」에서 이러한 일이 추진되고 있었을 때 「외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廣田和子(히로타카즈코)의 『증언기록 중군위안부 간호부』(新人物往來社, 1975)에 의하면 1945년 8월 9일의 소련침전 그리고 일본의 패전으로 새로운 사태에 직면하게 된 중국동북 지역에서는 「황군」의 군의들이 중군간호부들에게 소련병사가 요구하면 즉각 「정조」를 제공하도록 암암리에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성을 이처럼 유리하고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 일본 남성들과 지배층의 여성관의 근본에는 「명치」시대 이래의 가부장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부장제와 남권사회의 뿌리는 똑 같습니다. 그 뿌리에 천황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부장제 = 남권사회의 정점에 있었던 인간이 즉 국가의 「대가부장」 「대군」으로 군림했던 소와(昭和) 천황 히로히토입니다.

만약 히로히토가 중군위안부 정책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책임이 면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최고 책임자였던 그이가 신하들과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히로히토는 한마디의 사죄도 안한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일본의 메스컴과 지식(문화)인들은 파렴치하게도 그에게 「평화주의자 소와 천황」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보냈던 것입니다.

3. 중군위안부 문제는 여성문제의 "원점"

일본국가로 부터 성적 착취를 당했다는 점에서 일본과 조선의 중군위안부는 같은 선상에 위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인 위안부중 많은 사람들이 창부 출신이었다는 것을 가지고 「순진하지 않은 여자」로 취급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우리 일본여성들 측에서도 그녀들을 자기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처럼 생각하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편견」이 「중군위안부문제」를 자기들의 문제로서 생각하지 못하게 해온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전공하는 여성사에서도 또 전후 일본 여성운동이나 평화운동 속에서도 그녀들의 역사는 전혀 무시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권력에 의해 빼앗겨온 여성의 성을 우리의 것으로 되찾는 일을 항상 「원점」으로 생각하고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그녀들 창부는 가제도(家制度, 일본의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공창제도(바로 말한다면 국가공인의 매매춘제도 또는 국가가 관리하는 매매춘제도)의 희생자였습니다.

가부장제하에서 여성은 성적예속을 강요당하는 존재입니다. 여성을 남성의 성적종속물로 하기 위해서 여성은 무능력, 무교양하고 저임금 노동력일수록 좋았습니다.

여공이 되어 노동력을 싸게 파는 것도, 창부가 되어 문자 그대로 몸을 파는 것도, 결혼해서 경제력있는 남편에게 몸을 파는 것도, 그 형태는 달라도 여성이 놓여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러한 가부장제를 보완하는 것이야 말로 공창제도이며 「황군」에 의해서 변형된 공창제도가 중군위안부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창제 = 중군위안부정책하에서 일본인 위안부도 조선인 위안부도 성적으로 착취 당한 희생자였습니다.

4. 조선인위안부는 성과 민족의 이중 착취를 받았다.

그렇지만 조선인위안부의 경우는 성적착취와 더불어 민족적 착취를 당했습니다. 착취라고 하기 보다 「민족말살」이라고 하는 것이 낫겠지요.

아시다시피 미나미 지로(南次郎) 육군대장의 조선총독시대(1936~42)는 「황민화정책」이 강력히 추진되어 「내선일체」 「일시동인」(一視同仁)의 구호가 나돌았습니다. 「내선일체」란 조선인을 황민화, 일본인화, 동화 함으로써 민족을

말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국어」(일본어)를 강요하고 창씨개명, 신사참배 등을 황민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강제하며 정신적 민족말살을 도모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젊은 미혼여성을 「위안부」로 끌려간 것은 「궁극」적인 민족말살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조선여성은 대상으로 한 일본국가의 「위안부」사냥의 실태는 조선인 강제연행의 어느지방 동원 책임자였던 요시다세이지(吉田清治)의 저서 「나의 전쟁범죄」(三一書房, 1983년) 속에 적나라하게 서술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실로 전율을 느끼게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성으로서 조선민족으로서 성과 민족의 두가지를 빼앗겨온 조선인 위안부들은 과연 일본패전후(그녀들의 입장에서는 「조국해방」후 입니다만) 무사하게 고향에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같은 전쟁피해자, 식민지 지배의 피해자인 동포들은 아직도 중군위안부 문제를 입에 오르내리는 것조차 「말세」라고 말할 정도로 유교도덕, 「정조」관념이 강한 풍토라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더 심했을 것입니다. 그녀들은 귀국을 타고 상륙을 눈앞에 하면서 투신자살을 한 경우도 있었다고, 일본에 오신 윤정옥선생

님의 강연에서 들은 바 있습니다.

또 멀리 남방, 오키나와, 사할린 등지에 버려진채(일본당국과 군은 패전후 그녀들의 귀국에 성의있는 대응을 하지 않았다)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 나이 먹고 살아계시는 분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일본 여성들은 이러한 일본국가가 범한 명백한 전쟁범죄를 이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일본인들이 경제동물(economic animal)이라고 불려진지 오래 됩니다만 만약 일본인이 국가가 범한 죄과를 계속 모르는 채 한다면, 우리 일본인은 인간으로서의 감성도 도덕도 영원히 상실한 국민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일본인이 중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관여하는 것은 오랫동안 상실해왔던 인간성을 회복하는 일에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성을 가진 여성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 드렸기 때문에 되풀이 하지 않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여성들은 서로의 입장에서 충분히 솔직한 대화를 해야하고, 또 그것을 계기로 하여 일본여성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고민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いまこそ「従軍慰安婦」にこだわる

鈴木 裕子(女性史研究者)

「従軍慰安婦」の問題は、戦後70年が経つた今もなお、日本とアジアの間に深い傷を残している。この問題を改めて問うことは、単に過去の歴史を振り返るだけでなく、現在の国際関係や人権問題にも深く関与している。戦時中の日本は、アジア各地に慰安所を設け、多くの女性を強制連行した。この行為は、国際法に違反し、人権の重大な侵害であった。しかし、戦後、日本政府は責任を回避し、被害者への謝罪と賠償を拒否してきた。この姿勢は、被害者とその子孫にとって、癒えない痛みの原因となっている。私たちは、この問題を決して忘れてはならない。過去の真実を明らかにし、被害者への謝罪と賠償を求めることは、正義の道である。そして、このような歴史を繰り返さないために、私たちは今後もこの問題にこだわる必要がある。



切り絵 金子 静枝

「道義国家」としての生きかたのため

道義国家とは、正義と道徳を基盤として行動する国家を指す。日本が道義国家として生き残るためには、過去の歴史を正しく認識し、責任を認め、謝罪と賠償を行う必要がある。戦時中の日本は、道義を軽視し、侵略と人権侵害を行った。この行為は、日本が道義国家として生き残るための大きな障害となっている。私たちは、過去の歴史を正しく認識し、被害者への謝罪と賠償を行うことで、道義国家としての責任を果たさなければならない。そして、このような歴史を繰り返さないために、私たちは今後もこの問題にこだわる必要がある。

女のしんぶん

資料② 第十二軍第十四兵站病院陸軍軍医少尉・麻生俊男
花柳病の積極的予防法(一九三九年六月二六日付)

娼婦
昨年一月小宮上海郊外勤務中、日命令ヨリ、
新三真地へ進出スル娼婦ノ検査ヲ行ヒタリ。コノ時、
被検査者、半島婦人八十名内地婦人二十名余ニシ
テ、半島人ノ内花柳病ノ疑ヒアル者、極メテ多数ナリ
シモ、内地人ノ大部ハ現ニ急性症状コトナキモ、期
甚ダ如何ハシキ者ノミシテ、年齢モ殆ド二十歳ヲ
過ギ中ニ四十歳ニナリナントスル者アリテ、既往ニ賣
淫娼業ヲ数年経来シ者ノミナリキ。半島人ノ老年

齡且ツ初ナル者ノ多キト興味アル対象ヲ為セリ。
ノ後者ノ内ニ今次事変ニ際シ應募セシ未教育
補充トモ言フ可キガ交リ居リニ爲メナラン。
一般ニ娼婦ノ復ノ若年齢程良好ナルモノナリ。〔中略〕

故ニ老年ノ娼婦ニ保護ヲ加
ヘル事ヲ重シクシテ、意義アル事ナリ。サレバ戦地

へ送り込ミル娼婦、年若キ者ヲ必要トス。而シテ小宮
某地ニ検査中屢々見シ如キ面皴蹙部ニ横痃手
術ノ痕痕ヲ有シ明ラカニ既往ニ花柳病ノ烙印ヲナシ
シアバズシ女ノ類ハ敢テ考ラザル。此ノ皇軍
將兵ノ贈リ物トシテ實ニ如何ハシキ物ナリナリ。
如何ニ検査ヲ行フトハ言フ。
一應戦地へ送り込ム娼婦ハ内地最終ノ港灣ニ於テ、
充分ニ淘汰ヲ必要トス。マシテ内地ヲ喰ヒツタガ如
キ女ヲ戦地へ數隻ハサス如キハ言語道断ノ沙汰
ト言フ可シ。〔後略〕 * 傍線は引用者

II. '정신대' 원혼서린 발자취 취재기

윤정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필자의 말〉

필자가 정신대의 발자취를 찾아 그들의 비참한 과거를 밝혀 보려는 데에는 내 나름의 이유가 있다.

1943년 12월 내가 이화여자전문대학교 1학년때 일제가 한반도 각지에서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 여성들을 마구 정신대로 끌어가는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이에 많은 학생들이 서둘러 결혼하기 위해 자퇴를 하기 시작하자 당황한 학교당국은 "학교에서는 책임지고 말하는데 너희들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얼마 뒤 우리들은 국민 총동원령에 응한다는 서식에 지장을 찍어야 했다.

나는 부모님의 권고에 따라 학교를 자퇴해 정신대를 모면했지만 그 무렵 내 또래의 많은 처녀들이 일제에 의해 끌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20세기에 일어난 이 끔찍한 일이 자칫하면 21세기에까지 이어져, 제2차 세계대전조차 들은 적이 없는 세대에게로 옮겨갈 것을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 금할 수 없다. 나는 이 일만은 잊어버려서는 안되며, 역사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야 한다는 믿음에서 이 일을 하게 된 것이다.

필자는 만일 일본이 우리나라의 젊은 여성을 왜, 어떻게, 얼마나 끌고갔으며, 무슨 짓을 했는지, 전쟁 뒤에는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는지를 진작 밝히고 응징했다면 오늘날 처럼 기기촌에서 또는 관광지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외화벌이에 나서는 한국의 매춘여성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오키나와와 그밖의 여러 곳에서 일본군 위안부였던 우리의 여성들이 전후연합군 위안부로 고스란히 넘어간 경우를 발견하고 이런 느낌은 더욱 절실했다.

이 글은 1980년 12월, 1988년 2월과 8월, 그리고 지난해 7월 등 네차례에 걸쳐 일본 홋카이도와 오키나와, 타이 핫차이, 파푸아뉴기니-그러니까 우리 정신대의 피눈물 자국을 따라 현지 신문등 옛자료를 뒤지고 관계자들의 증언을 모아 작성한 기록이다.

① 홋카이도

일본 오키나와의 나하 남쪽에 있는 이토만시의 평화기념공원은 일제 때 징용간 한국 젊은이를 위한 위령탑이 있고 이은상의 만가와 조사가 새겨져 있다. 그러나 이 민족의 처절한 고난을 짊어졌던 '정신대'라는 이름의 위안부

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다.

위안부 문제가 왜 이렇게 동한시되고 있는가? 첫째 이유는 우리쪽의 기록이 없기 때문일 것이고, 두번째로는 정신대로 나간 여성이 거의 서민층 출신인 데다가 여자이기 때문에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외면당한 것이 아닌가 생

각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유는 일본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상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 있는 자료도 폐기했을 뿐 아니라 당시 장교였던 요시다 세이지를 제외하고는 정신대 연행에 관계했던 관리들이 절대로 입을 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제작년 8월 두번째로 일본 홋카이도에 갔을 때 그곳에서 만난 일본 주민과 징용갔다가 살아남은 한국 남성 그리고 징용병의 아내(한국여성)들의 증언, 당시의 기록 등을 통해서 한국의 어린딸들이 이미 1910년 무렵에 일본으로 갔다가 속아서 일본 노동자와 한국노동자를 상대로 매춘을 강요당했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은 개항 이후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본축적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에도시대부터 시작한 홋카이도 개척, 러시아 전쟁에 이겨서 떠난 이권인 연해주지방의 벌목, 그 연안의 어획, 그 시대의 에너지원인 채탄등에 필요한 노동력이 일본 남성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지자 일본은 1910년 조선을 합병하고 조선에서의 토지조사, 쌀증산계획과 함께 중국침략과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면서 조선인 노동자의 입국을 엄히 막던 1899년의 칙령을 폐지하였다.

〈자치연 샷포로〉에 의하면 1939년의 한국인 강제연행수는 일본 전역에 5만2천1백20명인데 1945년엔 1백51만1백42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때 한국 여성들이 갔는지에 대한 공식 기록은 없다. 그러나 '홋카이도 개척수난자 조사위원회'의 위원중 한 사람인 가타다 세이지는 그들이 왔었으리라는 굳은 심증을 가지고 있었다.

제작년 여름 샷포로에서 만난 불고기집 '신생식당' 주인 김달선(68. 16세 징용에 끌려간 경북 상주 출신)씨와 나이에의 불고기집 '남대문'의

여주인 이종해(70. 19세 때 징용간 남편 따라 도일)씨의 증언, 가타다의 조사, 〈자치연 샷포로〉와 '역사교육자협의회 마쓰마에 서클'의 출판물, 하코다테 YWCA에서 만난 국교교사 아사리 마사요시의 자료를 참고하면 홋카이도로 끌려간 한국 여성의 상태는 대략 이러했다.

한국 여성들은 당시 조선에서의 생활이 어려워 배불리 먹고 돈 벌 수 있다는 일본인의 말을 믿고, 한 부류는 동해를 건너 홋카이도의 하코다테 아니면 오타루항구에 도착했고, 또 한 부류는 현해탄을 건너 오사카 방직공장 직공이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지옥같은 오사카 방직공장을 벗어나려다 또다시 속아서 매춘굴로 빠져들게 되었다.

아사리가 제공한 당시 발행된 〈하코다테신문〉(하코다테 니치니치)등에 의하면 1920년에 오사카 방직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여성이 하코다테로 온 기록이 있다. 1921년에는 여성 6명, 남성 1백명이 하코다테에 있었고 한국 요리점이 한 군데 있었다.

한국 여성들은 '슈생야'(노동중개인)에게 속아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슈생야는 여성들을 자기집에 두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게 외부와 차단시키고는 잘 먹이고 시내를 구경시킨 뒤 돈을 들킵 받고 유곽에 팔아 버렸다고 한다. 이 무렵에 오사카나 홋카이도에 간 여성들은 대부분 15세에서 20세 정도였다.

매춘을 강요당한 여성들은 이 밋에서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판단하자 죽음을 택하였다. 혼자 죽기도 했고 집단적으로도 많이 죽었다.

그들이 죽음의 길로 택한 곳이 '자살의 명소'가 되어버린 '다치마쓰 미사키'라는 절벽이다. 하코다테 YWCA 소개로 필자의 안내를 맡아준 이케다 하루오와 함께 좁은 오르막길을 지나 다다른 절벽은 험하고 사나웠다. 태평양에서 밀려오는 파도가 부서지는 절벽 아래에는 파도에 할퀴 바위가 널려 있었다. 그 절벽에서

한번 떨어지면 살아남을 길은 없어 보였다.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 절벽에 부서지는 파도소리가 “어머니—, 어머니—”하고 울부짖는 소리로 들린다고 이케다가 전해주었다.

아사리가 보여준 1923년 12월 18일자 <하코다테신문>에는 “가엾은 조선 미인의 죽음, 17세”라는 기사가 있었다.

이곳에서 죽은 한국 여성에 관한 기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신문에는 “일본인들의 심한 학대에 못 견디 항의하던 여인들이 옷까지 벗겨 거리로 내쫓겼다”라는 기사도 있었다.

1935년 6월 20일자에는 “오전 2시께 머리를 풀어헤치고 반쯤 옷을 벗은 여인이 거리를 헤매고 있는 것을 순사가 발견”이란 기사도 보인다. 이방수(20)라는 이 여자는 ‘정덕수’라는 요리집에 있었는데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에서 병이 났어도 약도 쓰지 못해 정신착란을 일으킨 것이었다.

1941년 일본은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고 한국의 남녀 젊은이들을 더 많이 끌어갔다. 이중에 많은 여성들이 계속해서 자살했고 신문은 계속해서 이 사실을 보도했다.

드디어 1943년 일본 당국은 한국 여성의 자살을 기사화하지 말라는 금지령을 내렸다. 이보다 앞서 1940년쯤부터는 무단가출을 한 여성들을 찾는 기사가 구인광고란을 채우기 시작했다. 포주들은 머리모양, 입고 있는 옷을 묘사하여 도망한 여성들을 찾기 시작했다.

1940년 1월 7일자 <오타루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유우바리 탄광에는 7백4명의 반도인 광부가 있다. 멀리 타항에서 국책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 전사를 위안하기 위하여 이들이 오기 전부터 일을 추진했으나 금번 협화료 근처에 3동을 개설하고 조선 향토요리점을 경영키로 했다.”는 것이다.

<자치연 삿포로> 38쪽의 “삿포로에서의 조선 요리점의 변화”라는 대목을 보면 1920년대에 처음부터 조선노동자 상대의 위안부를 둔 조선

요리점을 개설했다는 것이다.

이 기록은 또한 일본 여성에게 실시됐던 공장제도를 한국 여성에게는 적용하지 않아서 등록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매춘을 강요당한 한국여성들이 인권, 임금, 위생과 후생면에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잘 말해준다.

1930년에 들어서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본래 삿포로의 조선요리점은 조선노동자를 위해 5~6곳 세워진 것인데, 일본 남성들이 한국 여성을 좋아하여 이곳이 곧 일본인 상대의 요리점으로 변해버렸다.

1935년경의 경찰발표에 의하면 이런 곳이 67곳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1백곳이 넘었을 것이라고 이 기록은 말하고 있다. 이곳에서 일하던 여성들은 하코다테 아니면 오타루에서 온 여성들로 일본말을 잘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조선사람에게는 절대로 일본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국 여성들이 있는 요리집이 몰려 있던 곳은 도요히라라는 거리에 한정되었고 하코다테와 마찬가지로 큰 대문이 초입에 있고 그 안에 준비하게 요리집이 서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도 이곳은 ‘다이몽도오리’(대문통)라 하고 조선요리집이 몰려 있는 곳을 ‘다이몽노 조센바’라고 했다고 한다.

조선 여성들은 일본 남성들에게 환영을 받았던 흔적이 짙다. 1935년 1월 27일 <홋카이도 타임스>에 의하면 “청년층을 쯤먹는 조선녀, 단호히 박멸할 것을 기도, 삿포르경찰서의 강경한 태도”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다. 이처럼 일본 당국은 한국 여성들이 왜 그곳에 있는지는 묻지 않고 감시를 강화했다.

일본이 전쟁을 확대해가면서 일본 안에 있는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도 한국적인 요소를 ‘박멸’하려 애썼다. 삿포르의 한국요리점의 이름을 한국적인 것, 예를들어 ‘도라지’라든가 ‘아리랑’ 같은 이름을 못쓰게 하고 한국 여성이 입

고있던 치마와 저고리도 강제로 일본옷으로 바꿔 입게 했다.

가타다와 아사리는 홋카이도 개척사를 편집하다 보니 한국 노동자의 비참한 자료가 줄줄이 나와서 이제는 한국인 징용관계와 매춘상황에 관해서 전문가가 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이곳 비행장의 바닥에는 한국인의 시체가 깔려있고 철도의 침목 하나하나가 한국의 징용부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했다.

그리고 다치마쓰 미시키에 부서지는 파도소리를 한국 여성의 원혼의 소리로 들을 수 밖에 없는 하코다테 주민들은 홋카이도 개척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한국의 남녀가 희생되었음을 기억하고 있었다.

② 오기나와

오기나와는 메이지시대에 사쓰마 번주에게 정복당할 때까지 독립된 류큐 왕국이었다. 정복된 뒤는 사쓰마번과 차별되어 통치를 받았다. 일본의 태평양전쟁 패전뒤에는 미군 밑에 있었으나 경제사정이 일본 통치때보다 더 힘들었다. 오기나와 사람들은 일본으로 돌아갈 것을 원했고 미국과 일본은 미국의 3군을 오기나와에 주둔시키는 조건으로 그 섬을 일본으로 복귀시켰다.

필자가 오기나와에서 만난 섬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 패전 직전에 일본군에게 당한 배신감, 굴욕감, 억울함을 아직도 삭이지 못하고 있는 듯했다. 이러한 감정이 한국 사람인 필자에게 호감을 갖게 한 모양이었고 위안부와 징용부에 대해 동정적이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생시위, 인권운동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젊은이들 중에는 오기나와의 독립을 꿈꾸는 사람도 있었다. 독립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들은 일본인과 다른 오기나와인이고 메이지시대까지 오기나와는 왕국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었다.

1980년에 이어 두번째 1988년 2월에 이곳을 찾았을 때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김혜원, 김신실 회원과 함께였다. 1980년대 만난 배봉기(75) 할머니에게서 좀더 이야기를 듣고, 도카시키템에 안치되어 있다는 ‘하루에’라는 위안부의 유골을 가지고 귀국하기 위해서였다. 일이 여의치 않으면 하루에의 유골이 실제로 있는지, 있을 경우 다음번에 인계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알아둘 계획이었다.

한국 여성들이 일본군의 위안부로 본격적으로 끌려가기 시작한 것은 일본이 중국 침략을 결정한 1937년부터로 추정된다. 관동군의 만주 주둔이 장기화되고 중국 본토로 많은 일본군이 투입됨에 따라 한국 여성 연행을 생각해낸 것이었다.

본래 일본군은 일본 매춘여성을 위안부로 삼고 있었으나 군대 안에 성병이 퍼졌고, 중국여성을 강간, 윤간하거나 접촉하다 성병이 옮기도 했다. 또 중국 여성 가운데는 첩자도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 군대가 성병이 없는 일본 미혼녀를 끌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안이 식민지 한국의 17~20살의 미혼여성을 데려가는 일이었다. 일본은 대부분 유교를 믿는 한국 가정이 딸들에게 엄하게 정조교육을 시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음으로 한국민족 쇠퇴책의 하나로 미혼여성을 위안부로 쓴 것이었다. 민족을 쇠퇴시키기 위해서는 그 민족의 기반이 되는 가정, 그 가정의 기둥이 되는 여성을 파괴시키는 일이 지름길이라고 착안한 것이라고 재일동포 김일면씨는 그의 책<천왕의 군대와 조선인 위안부>(1976년)에서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여성은 남성의 성의 위안물이라고 생각하는 여성 멸시사상이 깔려있었던 것이다. 종군 위안부 정책은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사상과 남성 위주의 여성멸시사상이 낳은 국책이라 할 수 있

졌다.

위안부의 수요는 '니쿠이치'라 해서 일본군인 29명에 한국여성 1명으로 계산해냈다. 그러나 일본 패전 직전에는 위안부 한명이 하루에 일본 군인을 1백명까지 상대했다고 한다. 1938년 무렵에는 군이 직영하는 '육군오락소'를 두어 위안부를 감독했으나 안팎으로 물의를 빚자 일본인(더러 한국인도 끼어 있었다) 포주에게 위안소를 맡기고 군은 그들을 감독하기로 했다.

위안소를 방문하는 군인에게는 몇가지 주의 사항이 있었다. 그중 몇가지를 소개하면 위안부와 연애하지 말것, 위안소에 들어가서 30분(어떤곳은 40분)이상 있지 말것, 콘돔을 반드시 사용할 것, 위안부는 공동소유라는 생각을 철저히 할것 등이다. 일본군에게 위안부는 공중변소 같은 물건이었다.

오기나와 나하에 살고 있는 '배봉기' 할머니는 이 고통을 겪고 살아남은 사람이다. 필자 일행이 나하시의 매춘여성 담당관리인 다카자토 스즈요와 함께 할머니를 찾아갔을때는 먼저 살던 집보다 나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할머니는 아파트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아무리 "할머니!"하고 불러도 다카자토가 "뽕이상!"하고 불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의 말에 의하면 할머니는 몸도 성치 않고 여전히 인간 기피중에 걸려 있어 조총련계의 김이라는 여성의 요청에만 응해준다고 했다. 할머니의 과거를 생각하면 1980년 11월에 나를 만나준 것만도 감사할 뿐이었다.

배봉기 할머니가 태어난 곳은 이북땅 흥남이다. 가와다 후미코의 <빨간 기와지붕의 집> (1987년)이라는 논픽션을 보면 1943년 할머니가 29살때 "입을 벌리고 있으면 바나나가 떨어지는 곳"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준다는 말에 어떤 여자소개를 따라 나섰다고 했다.

우리는 1988년 2월 19일 오기나와 나하에서 서쪽으로 55km지점에 있는 도카시키와 자마미

섬을 찾아갔다. 하루에와 배봉기 할머니가 있던 곳이 도카시키섬이다. 이 섬에서 우리는 다카자토의 소개로 오기나와의 주민 미야기 하쓰에(66.여)와 그의 이웃 주민 2명, 도카시키섬의 여관 '정구시소'의 주인 고하구라 센기, 그의 어머니, 그리고 배봉기 할머니가 살았던 '빨간 기와지붕의 집'인의 딸 나카무라 하쓰코(62)등을 만나 당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밀리기 시작한 1944년 9월에 일본군이 도카시키, 자마미, 아카섬에 자리를 잡았고, 10월 10일에는 연합군이 무섭게 공습하였다. 한국 여성들은 1944년 11월에 나하에 도착했다. 입을 벌리고 있으면 바나나가 떨어진다는 낙원은 간데 없고, 폭격으로 건물들은 파괴되고 모두 피난가 아무도 없는 폐허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며칠 뒤 다시 배에 실려 도카시키, 자마미, 아카섬에 7명씩 배치되었다. 그들이 도착하기 직전 도카시키의 여자청년단은 일본군에 찾아가 위안소 설치를 반대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위안소가 이 고장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에 쉽게 설득당했다.

위안소는 마을에서 떨어져 있으면서도 오기나와의 돈있는 사람들이 주로 사는 빨간 기와지붕의 좋은 집에 마련되었다. 배봉기 할머니가 배치된 도카시키섬의 집주인은 나카무라였다. 그의 딸 하쓰코는 한국여성들은 피부가 희고 고우며 키가 늘씬했고 그들의 이름은 기쿠마루(24살), 하루에와 가즈코(각각 23살), 스즈란(20살), 밧찬과 아이코(각각 16살) 그리고 아키코(30살 배봉기)...라고 기억하고 있었다. 온 섬이 칙칙한 군복과 몸뚱이를 입고 있는데 비해 그들은 연분홍, 연두, 연하늘색 기모노를 입고 있어 유난히 화려해 보였다. 더구나 10대, 20대의 젊은 여성들이라 '스타일'이 좋았다고 했다. 29살에 끌려온 배봉기 할머니는 길에서 한 해를 보낸 셈이라 이곳에 닿을때는 30살이 되어 나이든 편이었다. 제일 나이 어린 밧

찬과 아이코는 늘상 우는 빛이었으며, 폭격이 심해지자 모두들 아리랑을 부르며 울었고, 그중에서 기쿠마루는 술을 마시며 울었다.

필자는 하쓰코에게 이 여성들이 속아서 또는 강제로 끌려온 여성들인 것을 섬사람들이 알고 있었는지와 하루에에 대해 물었다. 그는 섬사람들도 다 그들이 직업적인 매춘부가 아님을 알고 있었고, 하루에는 교양이 있어 보였으며 일본말도 조금 했다고 했다.

야마다니 데쓰오의 <오기나와의 할머니>(1979년)에 의하면 결혼해서 아기가 있는 하루에는 눈을 딱 감고 군대식당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려고 돌아가려고 아기를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나선 여성이었다. 하루에는 사람을 끄는 힘이 있었던지 필자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하루에를 놓고 도카시키섬에 주둔한 장교와 위안부를 인솔해 온 군인 사이에 쟁탈전이 벌어졌는데 장교가 이겼다고 한다. 어쩌다 틈이 나면 하루에는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아기생각을 하며 정신대가 이런 일인줄 몰랐다면 늘 울었다고 했다.

연합군의 폭격은 갈수록 심해져 1945년 3월 23일과 24일의 공습으로 무서웠다. 일본군은 섬 사람들에게 산으로 피난하라고 명령했다. 이 공습으로 위안소였던 빨간 지붕의 집이 폭격을 당했다. 일본군은 한국 징용병들에게 수도 없이 참호를 파게하고 식량이 달라져 먹을 것을 훔치게 했다.

아카섬 주민들에 의하면 이 섬에 끌려왔다가 간 한국 징용부 가운데 10명이 1987년에 이곳을 찾아왔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동료가 일본군에게 집단학살을 당했다고 기억되는 지점, 섬 사람들도 그렇다고 생각되는 지점을 파보았다. 과연 그곳에서 사람의 뼈가 많이 나왔다. 이 장면은 그곳 텔레비전에 방영되었다. 한국 징용부들은 뼈를 파낸 곳에 태극기를 꽂아 놓고 유골을 본국으로 가지고 갔다는 것이

다.

일본군은 한국 징용부도, 오기나와 사람들도 믿지 못했던 모양이었다. 자기들이 수상적다고 생각하는 짓을 조금이라도 하거나 모국어를 쓰는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고 서슴없이 죽였다는 것이다.

하루에는 1945년 3월 23일 대공습때 부상당해 산속 참호로 옮겨졌으나 죽었다. 밧찬과 아이코도 죽었다. 징용부도 오기나와 사람들도 일본 군인도 죽고 부상했다. 아수라장 속에서 미쳐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생겼다. 고하구라 센기는 "일본 군인은 참호속에 피난해 있는 오기나와 사람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저희들이 들어갔다"고 하며 "더러운 것이 일본 군인"이라고 치를 떨었다.

도카시키섬의 위안부 중에서는 배봉기 할머니와 아이코만 살아 남았다. 징용부 1백50명중에서는 몇명이 죽었는지 알 길이 없다고 한다.

도카시키섬에 있는 높은 산꼭대기에는 "청년의 집"이 있고 그 못 미쳐 오른쪽 오솔길로 들어가면 '백옥탑'이 서있다. 1962년 3월 27일에 태평양전쟁 때 죽은 희생자들을 안치하고 세운 것이다.

야마다니의 <오기나와의 할머니>에 의하면 도카시키섬 사람들은 하루에의 고향사람들이 찾아오면 돌려주려고 그의 유골을 이 탑에 안치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탑에 새겨진 명단에서 하루에라는 이름을 찾지 못했고 야쿠쇼라는 동사무소에 가 보았으나 하루에뿐 아니라 위안부나 징용부의 유골이 따로 처리된 사실이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또 탑에 새겨진 수많은 이름중에 과연 위안부와 징용부의 이름이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배봉기 할머니는 전쟁이 끝나자 일본군과 함께 미군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다. 오기나와 본토에 다시 모인 위안부는 그곳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다시 미군 상대의 위안부가 되어야 했다.

할머니는 미군이 상륙할 때 죽는 줄만 알고 절망감에 빠졌었다고 한다. 그 이전에 폭격속에서 간호일 하라, 밥 지으라, 빨래하라, 먹을 것을 찾으라 산을 해매라, 탄약 나르라, 밤에는 '위안' 하라 일본군에 흑사당해 몸이 기진맥진했지만 죽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었다. 그는 일본군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어 일본이 이겨야 자기도 살 수 있고 미군이 상륙하면 다 끔찍하게 죽이는 줄 알았다고 했다.

나하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었다. 전쟁이 끝나고 한참 뒤 그 도시의 변화가에서 한 젊은 여성이 만세 부르듯이 두팔을 쳐들어 "나는 조선 사람이요! 나는 조선사람이요!"를 외쳤다는 것이다. 그는 위안부였는데 정신 이상으로 정신병원에 수용중 어떻게 뛰쳐나와 그렇게 자신의 신분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전후에도 살아남은 대부분의 위안부들은 한국의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차기들이 왜 끌려와서 그런 인간이하의 수모를 당하면서 살아야 했는지 몰랐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근원적인 자아 속에 숨 쉬고 있던 '조선인'으로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고개를 쳐들고 당당하게 살고 싶었던 바람을 이루지 못한 한 그리고 제정신 가지고는 말을 못했던 울분을 쏟아 냈던 것은 아니었는지...

③ 타이 핫차이

태평양 전쟁을 일본은 대동아전쟁이라고 불렀다. 대동아공영권을 건설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뜻일 것이다. 아시아에서 구미제국주의를 몰아내고 아시아의 여러나라를 함께 번영하게 한다는 것이다.

공영권의 외곽선은 1942년 2월 18일 일본대본영 정부연락회의에서 결정된 '신질서를 건설하기 위한 대동아의 지역'이라는 지도에 따르면 중국, 버마, 수마트라, 자바, 뉴기니, 솔로몬, 마셜, 중부 태평양섬, 일본등이다.

일본은 아시아의 여러나라를 모조리 자기들보다 열등하다고 단정하고 '공영'이라는 이름으로 구미의 손에서 빼내어 자기들 지배 아래 두려고 획책했다.

전쟁이 확대됨에 따라 전선이 넓어졌다. 군대의 사기와 점령지의 치안유지를 위해 일본군은 이 모든 전선에 위안부를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육군성은 "성전을 위해 대의친(조선 민족을 가리킴)을 멸할 시책이다"라고 부기한 극비통첩을 내어 조선인 여자를 위안부로 동원했다. 위안주의 나이를 17살에서 20살의 미혼여성으로 규정했던 일본군은 나이도, 미혼의 조건도 무시했다.

요시다 세이지는 <나의 전쟁범죄>(1983년)라는 저서 '제3화 제주도의 위안부사냥'이라는 장에서 노무보국회 시모노세키지부 동원부장이었던 자신이 어떻게 위안부를 '사냥'했나를 고백하고 있다. 그는 제주도 주둔 일본 육군의 협력으로 11명의 보병과 군용트럭 2대를 얻었다.

1943년 5월, 이 무렵 조선 사람들은 일본군에 끌려가면 그들의 '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요시다의 징용대는 맨처음 갖을 만드는 집을 습격해서 20~30명의 여자 중에서 8명을 끌어냈다. 여성들이 비명을 지르자 건장한 조선남자 4~5명이 길을 막았다. 칼을 꽂은 총으로 막아도 남자들은 손을 쳐들고 조선말로 필사적으로 항의해 왔다. 대원들이 총검을 들이댔을 때 그들은 도망쳤다. "아이고! 아이고!"하며 울부짖는 여성들을 트럭에 밀어넣었다. 트럭이 숲속으로 들어갔다. 요시다의 징용대장의 지시에 따라 대원들이 방금 사냥한 여성들과 놀게 했다.

성산포 단추공장에서의 일이다. 몹시 주저하는 사장에게 호통을 치고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여공은 30명 가량됐다. 징용대가 "작업정지!"하고 외치자 여성들은 비명을 질렀다. 쓸만한 여성을 고르는데 한 노파가 대원 팔에 매

달렸다. 옆에 있던 다른 대원이 노파가 머리에 쓰고 있던 수건을 움켜쥐고 얼굴을 짓히고 뺨을 쳤다. 임신으로 배가 부른 여성은 치마를 걷어올리고 속옷 밑으로 배를 들여다 보았다.

나이든 여공이 요시다에게 달려와 "조선여자를 어찌려는 거예요. 조선사람도 일본신민이잖아요!"하고 일본말로 대들었다. 요시다는 "전쟁때문이야. 방해말아!"하고 호통을 쳤고 그 여공은 조선말로 울부짖으며 계속 요시다에게 달려들었다. 요시다는 그를 밀쳤고 한 징용대원이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쳤다. 이 공장에서의 '수확'은 16명.

문앞에 지켜 서 있던 사장은 말없이 돌아갔다. 별을 보며 부대본부에 도착했을때 군인들은 환성을 울리며 여성들을 반겼다.

중일전쟁 전후해서는 속여서, 태평양전쟁이 확대되면서는 노골적으로 납치해서 중국, 타이, 버마, 태평양의 많은 섬으로 끌고갔다.

1944년 1월, 박경도라는 조선 사람은 중국의 한커우(한구)에 있는 무한루라는 유곽을 사서 위안소를 차리기로 했다. 조선에 와서 10명을 모아 한커우로 가는 도중 미군 폭격을 맞아 11명이 다 죽었다고 한다.

정신대로 끌려가던 여성들이 만주로 가는 도중 기차에서 뛰어내려 죽고, 태평양의 섬으로 가는 배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자살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성들의 발을 쇠사슬로 묶었다고 한다.

필자가 아는 한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중 자신이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세상에 말한 사람은 오키나와 나하의 배봉기 할머니와 타이 핫차이에 있는 유유타(70)할머니 뿐이다. 유유타 할머니는 신분이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중국이름을 쓰고 있다.

필자는 1988년 8월 홋카이도에 들러 유유타 할머니를 찾아 타이에 갔다.

방콕에 사는 필자의 친척이 주선해준 안내인 총락사의 딸딸이를 타고 여성공무원 한사람과

함께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다. 문은 잠겨 있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어떻게 할까 망설이고 있는데 이웃 주민이 아마 식당에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할머니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름은 '대중다실'. 식당 안은 연기로 그울려 새까맣고, 큰 불단이 입구와 부엌 가까이 두군데 설치돼 있었다. 오른쪽 벽에는 유유타 할머니의 남편 중국인 첸차오의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는 자기 집안이 은행가라고 사진을 설명하며 자랑스러워했다.

할머니는 깨끗하고 건강해 보였고 할아버지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으나 거동이 약간 굼뻐보였다. 사람이 점잖고 양순해 보였다. 유유타 할머니가 나를 고향사람이라고 소개하자 코피마시던 식당손님들이 나를 환영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일하던 첸차오의 둘째부인을 소개하고 그 부인의 소산인 아들들도 소개해주었다. 말수가 적은 둘째부인은 잘 생긴 50대초반의 여성이었다. 식당은 온 가족이 힘을 모아 운영하는 모양이었다.

필자는 커피를 대접받았는데 그 맛이 어땠는지 생각나지 않는다. 할머니는 한국말을 전부 잊어버렸다고 했다. 지금은 타이말과 중국말만을 한다는 것이다. 1921년 8월 15일생으로 처녀 때는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치렁치렁 했는데 타이에 와서 잘랐다고 했다.

할머니는 줄담배를 피웠다. 그리고 배봉기 할머니와 비슷하게 결벽증이 있는 듯싶었다. 어디를 가나 담배와 유난히 희고 큰 손수건과 두루마리 화장지를 챙겼다.

일본 출발 직전 도쿄에서 만난<아사히 신문>의 기자 마쓰이 야요리가 말한 대로 할머니 집 거실정면에는 작은 태극기와 할머니의 어머니 사진이 있었다. 필자가 반기자 '태극기' '어머니'를 가리키기도 했으며, 남편을 따라 중국 국적을 가지게 됐다고 여권을 보여주기도 했다.

할머니가 마음을 열어놓은 듯 싶어 그에게

직접 우리말로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놀러갑시다”라며 자리에서 일어나 담배와 손수건과 두루마리 화장지를 챙겼다. 우리 일행은 교외로 나가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고급식당에서 푸짐한 타이요리를 즐겼다.

필자는 유유타 할머니가 일본 여성인 마쓰이에게는 위안부 시절의 이야기를 했으면서도 필자에게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결코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타이로 떠나기 전에 필자는 한국의 텔레비전인지 신문인지가 할머니와의 약속을 어기고 원치 않은 부분을 보도하여 불쾌하게 여기고 있다고 들었다.

최초로 정신대 위안부에 대해 글을 쓴 샌더가코는 필자에게 유유타가 만나주지 않거나 혹은 만나주더라도 ‘중군위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한바 있었다. 이런 예비지식이 있어서 필자 역시 할머니가 얘기해 주리라는 기대는 별로 가지지 않았다. 다만 그를 만나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필자가 만나려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자신의 사생활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기로 작정한 모양이었다. 22살에 나라 떠난 사람이 한국말을 잊어버릴 리가 없고 “놀러갑시다”라고 한 발음과 억양은 한국 사람의 완전한 한국말이었다.

마쓰이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유유타 할머니는 경상도 출신으로 위안부가 되기전에 결혼했다. 친정도 가난하고 시집도 너무 가난한 데다가 시어머니의 구박이 심하여 할머니는 도망쳐 나와 부산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 우물물을 길어 물동이를 이려 하는데 일본 순사 4, 5명이 “잠깐만”하고 소리쳤다. 어쩌나 놀랐는지 동이를 떨구는 바람에 한 순사의 옷을 적셨다. 발로 차이고 얻어맞고 결국 끌려갔다.

1942년 가을, 할머니가 22살때 일이었다.

그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 군인들의

빨래를 하고, 막사를 청소하고, 탄약을 날라야 했고, 또 밤이면 군인들의 위안부가 되어야 했다.

마쓰이는 1984년 11월 2일자 <아사히 신문>에 이렇게 쓰고 있다.

“아침부터 몇십명을 상대해야 하는 날도 있었다.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감독에게 매를 맞고 머리를 잡아채이고 옷이 반쯤 벗겨진 채로 이리저리 끌려다녔다. 인간 이하의 생활이었다.”

일본의 패전을 알았을 때 조선 위안부들은 서로 얼싸안고 울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고국의 땅을 밟을 수 없는 몸이라고 생각했다. 일년 뒤 타이로 건너와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을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필자가 이를 동안 본 할머니는 강하고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이었다. 할머니는 마쓰이에게 “흙탕물에서 자라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는 연꽃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 연화각에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연화각은 할머니 식당 바로 옆에 있는 절이다.

아이를 낳지 못한 할머니는 남편에게 다른 부인을 맞도록 하여 지금까지 한지봉밀에서 화목하게 살고 있다.

아들을 셋이나 낳고 전처를 각듯이 형님으로 모시는 둘째부인도 착한 사람이라니와 아들을 낳아준 젊은 여성을 친동생처럼 한집에서 데리고 사는 할머니도 보통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한국 매스컴에 대한 거부감도 아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한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그는 마쓰이에게 “군인은 나쁘지만 한국사람, 일본사람, 타이사람, 중국사람 모두 친구”라고 했다는 것이다. 과연 할머니는 시동생 가족과 또 다른 친척들과도 한핏줄을 나눈 가족 같이 살고 있었다.

필자는 지옥을 이기고 나와 본래 쓰고 있던

겹질을 깨고 생명을 사랑하고 인간간계를 소중히 여기는 강한 여성을 만난 느낌이었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개방적으로 사는 유유타 할머니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오키나와에서 인간 기피증에 걸려 폐쇄적으로 살고 있는 배봉기 할머니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키나와를 떠나야 하는 1988년 2월 하순 어느 일요일 아침 필자는 일행과 같이 허탕칠 셈치고 배봉기 할머니를 다시 찾았다.

우리가 문을 두드리며 할머니를 불렀다. 안에서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렸다. 배봉기 할머니였다. 우리 자신을 소개하며 할머니의 안부를 물었다. 할머니는 귀찮다고 가라고 손짓을 했다. 현관의 신발장에 한손을 얹고 서 있는 할머니는 어지러운 듯 몸이 앞뒤로 흔들 흔들했다.

“할머니 그냥 갈게요. 이것은 한국에서 가지고 온 인삼차예요. 받아주세요.”

“필요 없어” 할머니는 손짓으로 우리에게 가라고 했다.

“안녕히 계세요, 할머니”하고 필자는 얼른 뒤로 물러섰다. 우리가 지체하면 할머니가 쓰러질까봐 걱정되어서였다.

필자는 할머니가 문을 닫자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다.

가와다의 책을 보면 할머니는 포로수용소에서 나와 한곳에 오래 있지 못하고 오키나와를 한없이 헤맸다고 한다. 그뒤 나하에 자리를 잡자 그의 지옥같은 과거가 세상에 알려지고 이렇게 사람이 찾아오게 된 것이다. 오는 사람마다 꿈에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캐묻곤 하니 배봉기 할머니가 심신이 병든 것도, 우리를 그토록 피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배봉기 할머니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유유타 할머니도 보았다.

그러나 유유타 할머니의 즐담배나 필요 이상 깨끗하려고 신경을 쓰는 증상은 과거에 그들이

겪었던 고통의 후유증인 듯 싶었다.

아무리 자료를 모으고 증언을 들어도 그들이 겪은 고통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일런지 모른다.

④ 파푸아뉴기니

파푸아뉴기니의 수도인 포트 모르즈비에 도착한 것은 1989년 2월 21일이었다.

태평양전쟁 때 일본의공군기지가 있었고 공군 7만명과 육군 14만명, 그리고 한국과 일본 위안부가 많았다는 뉴브리튼섬의 라바울에 가기 위해서였다. 적도 밀이라 어쩌나 더운지 화장지로 땀을 닦으면 물속에서 건져낸 듯 종이 가 젖어버렸다

택시기사에게 속고 바가지를 술하게 쓰는 등은 갖 경험을 하며 라바울에 도착한것이 2월24일. 25일에는 알버트 부르아 목사의 안내로 라바울과 근처 코코포를 돌아보았다.

상상했던 것보다 마을은 작았고 전쟁은 처참했던 모양이었다. 마을 한 가운데있는 우체국 앞과 라바울 연합교회 사무실 앞 그리고 현재 야구장으로 쓰이고있는 곳에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뉴기니 여성단체가 전쟁(1942~1945)중에 죽은 일반시민을 위해 세운 기념비가 있었다.

마을 안의 라바울 전쟁박물관에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이 썼던 대포 등 녹슨 쇠붙이가 마당에 진열되어 있었다. 표지판은 영어로 써어 있는데 유독 ‘라바울정부건립’이라는 글자의 ‘라바울’은 일본문자로, ‘정부건립’은 한자로 써어 있었다.

마을에서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산위에는 일본 해군지휘소가 있어 대포, 소형 비행기 그리고 쇠붙이 따위가 전시되어 있었다. 이곳에도 표지판이 있었는데 ‘해군방공부대지휘소’는 한자와 영자로 쓰여 있고, ‘라바울 정부건립’은 영자, 일본어 한자로 쓰여 있었다.

라바울 전쟁박물관에도, 이곳에도 누가 그

자리에서 싸웠는지, 전시되어 있는 무기가 누구의 것이었는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이상했다. 그러면서 '라바울 정부건립'의 '라바울'이 파푸아뉴기니어가 아닌 일본어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었다.

이로 미루어 일본이 전후에 세웠음이 분명한 데도 이것을 라바울 정부가 세웠다고 표시하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았다. 이곳에서 침략전쟁을 치렀다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속셈이 아닌가 하는 것만이 짐작될 뿐이었다.

부근의 산 밑에는 죽은 일본군인을 위한 위령탑이 있었다. 정면 오른쪽에는 일본군인이 아니고 '전사 일본인의' 비라는 비석이 있고 그 옆에는 '세계인류가 평화롭기를'이라고 쓰인 나무기둥이 서 있었다. 라바울에서 꽤 떨어진 곳에는 기가막히게 잘 가꾸어진 연합군묘지가 있는데 영국연방이 관리하고 있었다.

태평양전쟁 당시 파푸아뉴기니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신탁통치를 받고 있었고 라바울의 인구는 1만명이었다. 지금은 독립국이 되었지만 아직도 라부울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은행은 있어도 파푸아뉴기니 은행은 없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 현지주민의 희생을 애도하는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다.

필자는 독일 다카우의 유대인 수용소에서 독일이 전쟁동안에 저지른 죄과에 대해 솔직하게 시인하고 통회하고 있는 것은 보았다. 필자가 라바울에서 본 전후의 일본의 태도는 그 뒤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몰라도 독일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되었다.

2월 24일, 호텔 프런트에 제2차 세계대전때 이곳에 있었던 노인을 만날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이튿날 호텔 직원은 필자가 찾는 사람이 오후 3시에 찾아올 것이라고 전해주었다. 그는 부르나이라는 사람으로 일본말을 한다고 했다.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랐다.

그는 5시경에야 겨우 나타났다. 키가 작으나 다부진 체격을 한 50대 남성이었다. 일본군인

위령제를 지내기 위해서 일본에서 온 사람 5명을 공항까지 바라다 주느라고 늦었다는 것이다. 일본사람들은 패전 뒤 45년간 해마다 와서 자기나라 전사자의 위령제를 지내고 있다고 한다.

부르나이의 안내를 받아 딸딸이를 타고 위안부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장소를 둘러보았다. 그는 8살 때 아버지와 함께 막사를 청소하고 군인들의 빨래를 하고 화장실을 청소했던 사람이다. 자기 눈으로 위안부들을 직접 보았고 그들의 생활과 일본군인들과의 관계를 자세히 알고 있었다. 그 당시에 배운 일본말을 의사소통이 될 만큼 지금도 기억하고 있었다.

해군사령부는 지금 변화가라고 말할 수 있는 중앙에 자리잡고 있었고 위안소는 바로 옆에 즐비하게 서 있었다고 한다.

김일면씨가 지은 <천황의 군대와 조선인 위안부>(1976년)에 따르면 코코포에 있었던 육군 기지에는 군인 수가 해군의 공급이 되었으나 위안부의 수는 같았다고 한다. 그러나 해군과는 사이가 나쁜지라 육군은 자기들에게 배당된 위안부만으로 자체내에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

같은 책 11장 '라바울의 장병과 연인'에는 "총알과 같은 속도로 위안부가 도착한다"라고 하여 위안부의 공급이 신속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일본군은 전쟁터에서 위안부가 총알만큼이나 절대 필요했던 모양이다.

부르나이는 재미있는 과거를 회상하듯, 군대가 들어오면 곧 여성들이 뒤따라 상륙했다고 웃으며 말했다. 여성들은 모두 젊었고 일본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다. 그런 필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 많은 위안부들이 다 일본여성인줄 알았다고 말했다.

위안소가 없는 근방의 군인들은 라바울로 나들이를 온다는 것이었다.

한껏 몸치장을 하고 배에서 내린 그들은 줄은 지어 행진했는데 그 광경은 정말 볼만한 구

경거리였다고 그는 덧붙였다. <천황의 군대와 조선인 위안부>에 따르면 중국 대륙에는 조선인 위안부가 태반이었지만 태평양섬에는 일본인 위안부도 상당수 있었다고 한다.

육군위안소에서는 병사는 오후 4시까지, 하사관은 8시까지, 장고는 밤에 이들을 이용하도록 했다. 위안소시설이 넉넉했던 해군은 시설 자체에 등급을 두어 운영했다고 한다. 일본여성은 사관만을 상대하고 조선여성은 사관이 찾아오면 상대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병사만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본여성은 병사가 찾아가도 상대해서는 안되었다.

해군에는 16살부터의 어린 소년 돌격대원들이 있었다. 이들은 킬킬이 엔진에, 돌아올수 없도록 기름을 조금밖에 넣지 않은 비행기로 폭격나갈 운명이었다. 소년들은 출격전날이면 위안소에 가라는 명령을 받는다. 그럴 때면 내일이면 죽는다는 것을 안다. 오키나와에서는 같은 또래의 간부후보생들이 폭탄을 싣고 미국 해군함정을 향해 돌진해야 했다.

권병탁씨가 쓴 <개라마 열도>는, 해안 근처의 굴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배를 한국징용부들이 꺼내어 나이 어린 젊은이들을 실어 날랐는데 입술이 파래가지고 부들부들 떠는 소년도 적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미 세상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소년들과 위안부들에게 일본군은 히로뽕을 먹였다. 일본 소년들에게는 공포감을 없애기 위해, 한국 여성들에게는 수치심을 없애고 불가능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김일면씨의 책에 의하면 라바울에서의 한국 위안부는 하루 90명을 겪은 여성이 있었다고 한다.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관리부 군인이 칸막이 사이로 주먹밥을 넣어 주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싸움터가 넓어지는 만큼 수요가 늘어 위안부를 트럭에 싣고 전쟁터에서 전쟁터로 군인을 찾아 다녔다고 한다. 먹을 시간도 잘 시간도 없이 다음 장소로 가는 트럭속에

서 던져주는 주먹밥을 먹고 잠을 잤다고 한다.

이러한 끔찍한 삶 속에서 한국위안부와, 출격이 곧 죽음을 뜻하는 육해군의 소년들은 완전히 모든 탈을 벗어던진 인간과 인간의 만남을 가진 모양이다. 다음날 그 소년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위안부는 그의 죽음을 목놓아 울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름을 쓴 종이를 방 한쪽에 세워놓고 꽃을 꽂아 그를 기억해 주었다는 것이다.

라바울에는 연합군의 공습이 끊이지 않아 마을 위안소는 천장에 구멍이 뚫려 있고, 그 사이로 하늘이 보였다. 전쟁 막바지에는 폭격이 심해 군대와 위안부가 해안선을 따라 파놓은 굴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 이 굴들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근방에서 데려온 중국인과 인도인, 한국 징용부들이 뚫으리라 짐작되는데 높이도 넓으려니와 길이도 길었다. 굴 바로 앞이 자동차 길이었고 바다와 잇닿아 있었다. 부르나 목사는, 해안선에서 수직으로 시심이 깊기 때문에 5백t급의 배가 정박할 수 있어서 라바울이 해군의 요지가 된 것이라는 현지인들의 설명이다.

1989년 여름 타이 파타야에서 열린 한 국제 회의에서 만난 파푸아뉴기니 대표는 자기가 어렸을 때 전쟁 끝무렵 굴 안에 위안부가 있는데도 출입구를 막고 폭파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필자가 목격한 굴들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굴이나 참호를 폭파하는 것은 패전 뒤 일본군이 흔히 쓴 수법이였다. 그동안 수집한 자료와 증언에 의하면 일본군은 상부 명령에 의해서, 또는 패전 소식을 듣고 한국위안부를 현지에 버리고 자기들만 도망가기 위해서, 연합군의 공습이 있을 것이라고 여자들을 참호에 모이게 해놓고 폭파하기도 하고, 동굴에 피신해 있는 위안부를 나오라고 하고는 기관총으로 사살하는 만행을 예사로 저질렀다는 것이다.

일본군이 이렇게 잔인한 수법으로 한국 위안부를 죽인 것은 물론 그들의 만행을 감추기 위해서였다. 동시에 소이 '황군' (천황의 군대) 안에 여성을 두지 않는다는 철칙이 엉터리였음이, 그리고 조선민족 쇠망책의 하나로 조선여성을 멸하려던 음모가 폭로될까봐서였다.

지금 1990년 1월,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21세기이다. '해방'이 되고 45년이 지나도록 징용부로 끌려간 이 나라의 장정들이 머리가 흰 노인이 되도록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외지에서 살아왔다. 이런 사실도 기가 막히려니와 정신대 위안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거론조차 안하고 있다. 오키나와의 배봉기 할머니와 타이의 유유타 할머니처럼 위안부였던 할머니들이 어디엔가 살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살아 남았으면서도 자기몸이 더럽혀졌으니 어찌 고향땅을 밟을 수 있겠느냐며 지금도 남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들을 찾아내 남은 생을 몇몇이 고향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전제로서 여성의 성에 대한 관념을 철저히 바꾸는 사회적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원해서 간 것이 아닌 식민지 민족의 명예를 지고 강제동원된 위안부가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를 밝혀 공적 역사적으로 정리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 모든 역사서술을 고쳐써야 할 것이다.

위안부나 징용부 생각을 하면 일본에 대한 원한이 하늘에 사무치지만 일본인 중에도 과거를 뉘우치는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나는 안다. 그들의 도움으로 이만큼이나 위안부들의 고통의 자취를 알아볼 수 있었다.

한국침략으로 인한 민족적 수모를 잊어서도 안되지만 감정적으로 일본을 미워하는 것만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의 양심세력과 정부당국의 협력을 얻어 이 문제를 밝히고 정리하는 일은 비명에 간 위안부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요, 역사를 앞으로 이끄는 일이 될 것이다. 이 일에 일본이 협력할 때 일본도 과거에서, 전쟁범죄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믿는다. ■

Ⅲ. "우리여성들은 정신대 문제를 이렇게 풀어왔습니다."

(1) 활동일지

- 1988. 2. 12, -21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윤정옥, 김혜원, 김신실 3인이 "정신대 발자취를 따라" 후쿠오카에서 오끼나와까지 답사함
- 1988. 4. 21-23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반기생관광 세미나 자료인 "여성과 관광문화"에 위의 답사보고서 발간
- 1988. 5. 22 노태우 대통령 일본방문에 즈음하여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여대생대표자협의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정신대문제에 관한 여성계의 입장을 성명서로 냄
- 1988. 7. 20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교회와 사회위원회 안에 정신대 연구위원회를 둠
- 1989. 5. 18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로스엔젤레스 KQED-TV "전쟁속의 세계" 프로그램 중 정신대 관련 발언에 대한 항의문 보냄.
- 1990. 7. 10 정신대 연구회 결성
- 1990. 7. 14 또 하나의 문화 "정신대 해원곳"
- 1990. 7. 31 부산경제인 연합회와 지역사회 여성연합 주최로 광복 45주년 기념행사시 "일제에 짓밟힌 한국의 딸 정신대의 참상과 그후"란 주제로 일본 현지 조사 보고회를 열
- 1990. 9. 17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교사위원회와 정신대위원회가 일본 제118회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록 제19호건을 안건으로 다루고 한·일 양정부에 항의하는 공개서한을 보내기로 함의
- 1990. 9. 25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정신대위원회에서 참의원 회의록 19호건에 대해 1) 한일 양정부에 보내는 항의문 초안검토, 2) 정신대에 관심가진 타단체(국내, 외)와 연대하기로 하고, 확대회의를 열기로 함.
- 1990. 10. 11 (가칭) 정신대 대책회의를 열고 한·일 양정부에 항의하는 공개서한을 함께 검토, 확정함
- 1990. 10. 17 여성단체가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일 양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내고 동일 3시 일본대사관 방문 직접 서한전달
- 1990. 10. 27 일본 오끼나와에서 열린 "태평양전쟁희생자합동위령제"에 여성대표로 김혜원, 김경희, 윤영애 3인이 참가
- 1990. 10. 27 일본 참의원 의원 회관에서 「중군위안부문제 간담회」가짐. 간담회후엔 일본여

1990. 11. 16 성국회의원들과 한국대표자들이 함께 외무성을 직접 방문, 공개서한 전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정식으로 결성
 1990. 12. 20 공개서한의 회신이 없으므로 일본에 재촉장 보냄
 1991. 1. 8 “가이후 일본 수상방한에 즈음하여 정신대 문제에 대한 여성계의 입장을 밝힌다.”란 제하의 성명서 발표 동일 12시부터 파고다 공원에서 종로1가까지 시위
 1991. 3. 26 공개서한 회신에 대한 2차 재촉장 보냄
 1991. 4. 9 부산 경제인 연합회가 배봉기씨를 위한 모금운동 시작
 1991. 5. 28 정신대문제에 관한 강연회와 김용림 시화전
 1991. 7. 18 국회 청원서 제출-6개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관심 및 해결을 위한 노력 요청
 1991. 7. 23 위 청원서 관련 기자회견
 1991. 8. 14 김학순 할머니(위안부, 67세) 기자회견
 1991. 9. 18 신고전화 개설(한국교회여성연합회 교사위소속)
 1991. 9. 29 국회 및 정부기관 “정신대 실태조사대책위 구성요청” 공문발송(국무총리실, 내무부, 외무부, 정무제2장관실, 청와대비서실, 국회 외무위 등)
 1991. 10. 30 국회 및 정부기관 “희생자 추모비 부지요청”공문발송(위 기관 및 문화부, 독립기념관 참가)
 1991. 12. 2 대구 문옥주 할머니(위안부, 67세)신고
 1991. 12. 6 김학순 할머니 일본 동경지방 재판소에 소송제기(태평양 전쟁 희생자유족회와 함께)
 1991. 12. 6 가토오 관방장관 ‘일본정부는 정신대 문제에 대해 대처하기 곤란하다’는 망언을 발표
 1991. 12. 11 가토오 관방장관 망언 항의 공개서한을 일본대사관에 전달하고 시위 그리고 정신대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수요 정기시위 결의
 1991. 12. 13 정기 국회에서 지난 7월 제출한 ‘정신대문제 해결을 위한 청원서’를 외무통일위원회에서 검토할 때 윤정옥 공동대표가 증언자로 참석
 1991. 12. 27 사무실 임시 이전(한국교회여성연합회에서 종로구 박일재 변호사 사무실로)
 1991. 12. 31 서울 김복선씨(위안부, 67세)신고
 1992. 1. 8 일본대사관 앞에서 1차 수요정기시위
 1992. 1. 15 ‘사죄와 배상없는’ 미야자와 일 수상 방한 반대 및 2차 수요정기시위
 1992. 1. 17 일본정부의 정신대 진상규명과 배상을 요구하는 국회앞 시위
 1992. 1. 22 “향후 대책방안에 대한 기자회견”(대일본정부:법률자문단 구성할 것과 유엔 인권위원회에 상정 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수요정기시위도 계속할 것. 대한국정부:피해여성에 대한 응급생활보호조치 촉구. 독립기념관내 희생

자 추모비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촉구)과 3차 수요정기시위
 1992. 1. 25 지난 17일 국회 앞 시위도중 전경의 발길에 차여 사망한 태평양 유족회 소속 주기성 옹(70세) 추모제에 참여
 1992. 1. 28 4차 수요정기시위
 1992. 2. 6 사무실 임시 이전
 1992. 2. 1 U.N 인권위원회 정신대문제 상정위해
 - 2. 29 이호재 공동대표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 방문 홍보활동 전개
 1992. 2. 12 5차 수요정기시위
 1992. 2. 18 “정신대” 첫 증언자 김학순 할머니 적십자병원에 입원
 1992. 2. 19 6차 수요정기시위
 1992. 2. 21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김학순 할머니 무료입원 요청 공문발송
 1992. 2. 26 7차 수요정기시위
 1992. 2. 27 U.N 여성지위 위원회에 정신대문제 관련 호소문과 자료문건 발송
 1992. 2. 28 교회여성연합회 회원 28명(위안부할머니 2명)이 일본현지에서 “종군위안부 발자취를 따라서” 라는 제목으로 추모예배 드림
 1992. 2. 29 현재 “정신대”신고센터 신고접수 종군위안부 70명(생존41명) 근로정신대 90명(생존자 70명), 기타 40명
 1992. 3. 4 U.N 인권위원회에 정신대문제 관련 호소문과 자료문건 발송
 1992. 3. 4 8차 수요정기시위
 1992. 3. 8 전북 전주시 교회 연합 3.1기념예배시 박순금 공동대표 “정신대문제 강연”
 1992. 3. 11 9차 수요정기시위
 1992. 3. 17 이호재 공동대표의 “유엔 인권위원회 정신대문제 상정보고” 기자회견
 1992. 3. 18 9차 수요정기시위
 1992. 3. 25 10차 수요정기시위
 1992. 3. 27 본 협의회 김신실 선생, 위안부 문옥주 할머니 일본 후쿠오카 시민단체 초청으로 강연차 일본 방문
 1992. 4. 1 11차 수요정기시위
 1992. 4. 8 12차 수요정기시위
 1992. 4. 15 13차 수요정기시위
 1992. 4. 22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일본현지 추모예배 보고회”와 “심미자 할머니, 황금주 할머니 증언”
 14차 수요정기시위
 본 협의회 주최 “정신대 문제와 한.일정부의 책임” 공청회
 1992. 4. 29 15차 수요정기시위
 1992. 5. 1 5월 가정의 달 “정신대” 할머니들 경로잔치
 ~ 2
 1992. 5. 6 16차 수요정기시위
 1992. 5. 7 5월 7일부터 시작되는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 Working group on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 에서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과 International Abolitionst Federation 이 정신대문제의 공동제안자로서 제기함. 이 회의에 참여하는 10여 개의 민간단체에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와 자료를 우송함.
 본 협의회 김신실 선생, 문옥주 할머니, 야마시다 영애 문옥주 할머니 “시모노세키 우체국에 저금” 증언과 관련 일본 방문

1992. 6. 7 "전후보상실현을 위한 한.일 심포지움" (예정)
~ 8

* 올해 10월에 개최되는 유엔 인권 규약위원회에서 일본이 인권상황의 심의 대상국으로 포함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 위원회를 상대로 정신대문제에 관한 우리의 요구를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비올빈. 대만. 일본의 정신대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여성단체들과 국제적 연대를 모색하고 있음. 곧 정신대문제해결 위한 아시아 연대회의의 구성될 것임

(2) 피해자 신고현황

(정신대협의회 접수 기준)

서울 02)722-4400:79명(1992. 1. 14~31일까지)

02)730-4400:95명(1992. 1. 14~28일까지)

부산 051)461-0830:8명(1992. 1. 14~31일까지)

유형분류:근로정신대-94명

위 안 부-55명

불 분 명-32명(친척이나 이웃이 신고한 경우로 대부분 귀환하지 못한 사례들임)

피해자 나이:현재 61~73세, 당시나이 만 12~20세

당시의 일: (1)근로정신대;군수공장(미링구, 센바동), 방직공장, (2)위안부;중군하며, 군인들의 성적도구로 취사, 빨래담당자로 있으며 심지어는 총알 등도 나르는 일까지 했다.

활동장소: (1)근로정신대;부산, 대구, 도야마갱, 히조오까 누마주, 마즈바라 마즈조

(2)위안부;중국(천진, 만주, 북경, 상해), 라바울 섬, 싱가포르, 남양군도, 사이판

활동기간:6개월~4년(그외 1939년에 간 경우도 있으나 한국으로 귀환하지 않아 그 활동기간과 내용은 불확실한 사례도 있다)

가게 된 동기:강제징집 의 돈벌러 공부하다간 경우들이며, 특히 근로정신대의 경우는 교사의 권유가 가장 많고 읍.면.동사무소의 노무계원들의 권유 또한 크게 작용했다.

신고동기:본인의 경우 당시 무급된 급여지불 가능성여부를 확인 하지만 그 외 당시 근로정신대의 소대장이었던 여성은 "창피하지만 신고 안하면 죄짓는 같아"신고했다는 경우도 있다.

간접신고-혈육, 이웃확인(오빠:정용, 언니:정신대로 간 여성의 언니의 생사여부확인), 배상확인

현재상태:근로정신대, 위안부 둘다 당시 서민계층이 대부분었으나 근로정신대의 경우는 돌아와서 결혼도하며 살고있는 반면, 위안부는 결혼의 경우는 이혼을 하거나, 애를 낳지 못해 작은 부인을 보며 혹은 소설로 들어앉아 전처소생을 기르며 살고 있다. 그 외 양심으로 가책으로 결혼을 기피하여 독신으로 산다(특히 결혼의 경우는 자식, 남편이 있을 경우 생활은 근근히 해나가나, 이혼의 경우는 호적정리도 제대로 안되어 생활보호대상자 대상에도 제외된 채 살고 있고, 독신일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이나 질병으로 고생하는 등 대단히 열악하다).

현재의 문제점:(1)휴유증 (2)당시의 급여 미지불 (3)열악한 생활상태

대표적 사례:근로정신대 정씨(1932년 생)-장춘국교 고등과 1년 "간단한 일과 공부시켜준다"는 교사권유에 2년계약으로 일본에 가 도야미갱에서 월급도 받지 않은채 일했다. 그러다 해방으로 1년만에 귀국했다. 당시나이 만13세로 쇠다루는(미링구)일을 했는데 나무받침대를 놓고 올라가 손을 구부리고 하다보니 몇십년이 지난 지금도 손이 구부러져 있으며 힘이 하나도 없다. 결혼하 고도 자녀들한테 말하지 않고 비밀로 지내오다가 이제야 신고했다.

위안부 노씨(1922년 생)-현병 10여명에 의해 17세때 끌려갔다. 중국 천진서 27번으로 불리우 며, 다른 조선여성 37명, 일본여성 2명과 함께 군부대에서 생활(3년), 군인들이 날라다주는 밥으 로 군인들이 먹는대로 식사하며 사병 오전 10~밤12시, 장교 12시이후 부터 날셀때까지 상대해 야 했다. (30명씩), 그의 '탄약깎지(탄약을 쓰고 남은 상자)'등을 나르고 군에서 요구하는 일은 다 해야 했다. 당시 힘들었던 것은 '왜놈'들을 매일 받아야했던 것과 매주마다 성병검사받는 것 의 '수도셀 수없이' 잡아다 죽이는 팔로군을 죽일때 구경시키는 것이었다. 일군들은 팔로군 죽일 때면 의무적으로 보게 했는데 그때를 기억하면 지금도 몸서리쳐진다. 지정장소를 벗어날때면 감 시자가 언제나 미행했으나 그곳에 있는 3년동안 가끔 근처 성안에 놀러도 갔는데 그곳엔 옷장사 하는 한국인 내외가 있어 같은 한국인이라고 잘해주었다. 한 1년여 사귀다 그 내외가 옷과 함께 께작에 숨겨 탈출시켜주어 그들과 같이 북경에서 같이 2년여 살다 해방되어 귀국했다.

귀국해서도 닥치는 대로 살았는데 나이든 지금 혼자 배급쌀 10Kg, 보리 1되와 생활보호금으 로 연명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병인 당뇨병도 고치지 못하고 있을 뿐아니라 몸이 안아픈데가 없 이 아프고 죽을 지경이다.

성명서 · 신문자료 · 모음

성명서

- 노태우 대통령 방일에 즈음한 여성계의 입장 -

5월 24일로 예정된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에 즈음하여, 여성계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일본의 군사, 경제문화적 침탈의도와 현정권의 무원칙, 비자주적 대일 외교정책에 반대한다.

일왕 유감표명, 수상사과 차원에서 강행되는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이 종속적 대일관계를 유지, 강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수미다 등 노동현장의 위장폐업, 자본철수로 한국노동자의 생존권을 빼앗는 것을 보아온 우리는 최근 보수화 경향으로 치닫는 일본 자민당 정권이 제2의 대동아 공영권 수립을 의도하며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 것을 명확히 신군국주의적 음모라고 규정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유입된 왜색문화가 청소년들의 정신을 잠먹는 현실 가운데 가중되는 문화개방압력 등은 신군국주의이자 문화적 식민지화의 의도를 내포한 것이다.

이처럼 일본의 침탈의도가 노골화되는 가운데 강행되는 현정권의 방일은 일본정부의 의도를 관철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이번의 방일은 현정권이 현재의 국내적 위기를 외교적 성과물로 무마하려는 의도를 가진것으로 규정한다. 우리는 방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채 양국집권당의 이해관계속에 굴욕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일에 반대하며 아울러 지난 82년 교과서 왜곡사건 및 일련의 대일 관계에서 보여준 굴욕적 비자주적 대일관계를 청산하고 자주적이고 대등한 대일 관계로 정립할 것

을 요구한다.

1. 일본과의 대등한 외교수립은 전쟁에 대한 일본당국의 사과와 징용, 원폭 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 재일동포 법적지위 문제의 해결이 전제되어야 한다.

일본은 단 한번도 전쟁책임을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았고 84년 일왕의 유감표명 선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채 한일관계는 오늘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끌려갔던 재일동포는 아직도 제자리를 잡지못하고 지문날인 강요등 굴욕적 차별을 강제당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없는한 대등한 외교관계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며, 민족의 자주권,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이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현정권은 이번의 방일에 앞서 반드시 이 문제의 확약을 받아낼 것을 촉구하여, 다시한번 자주적 입장에서 외교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한다.

1. 일본의 과거의 범죄행위중 특히 묻혀있는 정신대 문제에 대한 일본당국의 사과와 배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의 제반 범죄행위에 대한 사과와 아울러 우리는 이번의 방일에 앞서 그간 양국간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정신대문제가 규명되고 이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일본당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본다.

20만을 능가했던 정신대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본에 의한 잔악한 범죄행위이며, 여성에 대한 잔혹한 성침탈 인권유린이었다. 그럼에도 일본당국은 이에대한 사죄, 진상규명은 커녕 비열하게도 자료조차 소멸시켜 은폐에 급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기생관광에서 보여지듯 일본의 한국여성에 대한 성침탈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우리 민족과 여성의 자존심을 살리고 원통하게 희생당한 영령들의 혼을 위로하기 위해 정신대의 진상을 규명해야하는 역사적 책임을 동감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시한번 일본 정부와 현정권이 이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일본정부는 군사, 경제, 문화적 침탈 의도를 중단하라.
1. 일본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문서화하라.

1. 일본 당국은 재일동포의 지문날인 강요를 철폐하고 재일동포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라.
1. 정신대에 대한 비열한 은폐를 중단하고 정신대 문제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사죄하라.
1. 현정권은 민족, 자주적 입장에서 정신대문제 및 재일동포 지위문제, 전쟁배상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라.
1. 일본의 양심세력은 일본이 저지른 범죄행위의 해결에 앞장서 노력하라.

1990년 5월 18일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여대생대표자협의회

공개서한

內閣總理大臣 海部俊樹貴下

우리들은 지난 6월 6일에 귀국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있었던 종군위안부에 관한 답변내용을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록 제19호"를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사회당의 本岡昭次씨가 강제연행에 관련하여 종군위안부에 대한 조사를 정부에 요청한데 대해 답변을 한 노동성 직업안정국장 清水傳雄씨는 '징용의 대상업무는 국가총동원법에 기초한 총동원 업무이며 법률상 각호열기 되어있는 업무와 종군위안부의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다.' '종군위안부에 관해서 옛날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니 민간업자들이 그러한 분들을 군과 함께 데리고 있었던 것 같으며, 이것의 실태에 대해서 조사하여 결과를 낸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귀 정부측의 이러한 답변내용이 역사적 사실에 반하며, 또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희생을 낳게 한 전쟁가해국의 정부로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항의하는 공개서한을 보내는 바입니다.

오늘날까지 종군위안부에 관한 역사를 발굴하는 작업은, 일본군에 의한 증거인멸과 전쟁책임에 대한 일본정부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위안부'에 대한 사회적 편견등에 의해서 별로 진행이 안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몇몇의 용기

있는 증언이나 남아있는 자료를 통해서 그 실태의 일부는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속에는 '천황' 직속의 일본군의 요청에 의하여 위안부용으로 '조선인 여자정신대'를 동원하라는 명령을 받고 제주도나 시모노세끼(下關)의 조선인 여성을 징용했다고 하는 그 당시 노무보국회의 동원 책임자의 증언¹⁾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군위안부를 동원하는 업무가 징용의 대상업무에 포함되고 있었다는것은 명백합니다.

위의 증언과 당시 위안부였던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조선인 여성들은 '여자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또는 잡역부라고 속아서, 또는 논밭에서 일하는 중에 사람사냥을 당하듯이 연행되어 각 전쟁터에 설치된 군대위안소의 위안부로서 일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강제연행이 총동원업무로서 기술이 안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일본군이 만행을 은폐하려고 했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의 군의의 증언²⁾에 의하면 위안소 규정을 정하고 성병검사를 하는 등 위안소의 관리하는 군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안소를 이용한 것은 일본군인들이며 이 죄는 엄격히 규탄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의 논거에 의해서도 정부의 답변은 밝혀

註:1) 吉田清治 「朝鮮人慰安婦와 日本人」, 新人物往來社, 1977年.

同上 「私の戦争犯罪」, 三一書房, 1983年

2) 麻生徹男氏の 證言

金一勉編 「戦争과 人間の 記録」, 軍隊慰安婦, 現代史出版會, 1977年. 所收

麻生徹男 「花柳病積極的豫防法」, 昭14年6月26日

高崎隆治編, 解説 「軍警官の 戦場報告意見集」, 不二出版, 1990年. 所收添附資料参照

지고 있는 사실을 무시한 것이며 이러한 사실을 몰랐더라면 그것은 일본정부가 강제연행에 대한 조사에 성의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쟁중 일본은 많은 젊은 조선인여성들을 속여서 강제로 끌고가 병사들의 성욕처리의 도구로 하는 비인간적인 짓을 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패전후는 그때까지의 '내선일체'를 뒤집어 놓고 조선인 종군위안부를 죽이거나 버리고 왔으며, 생존자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 아무 보상도 안한다는 이중의 죄를 짓고 왔습니다. 지난 5월 일왕(日王)이 과거의 양국관계에 대해 '통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하며 불충분하나마 반성의 뜻을 표명하고, 일본정부도 '조선반도에서 연행되어 온 모든사람'들의 조사를 한다고 표명한 직후, 종군위안부와외의 관계를 부정하고 조사를 거부한다는 것은 또다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들은 일본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일본정부는 조선인 여성들을 종군위안부로서 강제연행한 사실을 인정할 것.
2. 그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할 것.
3. 만행의 전모를 스스로 밝힐 것.
4. 희생자들을 위하여 위령비를 세울 것.
5. 생존자와 유족들에게 보상할 것.
6.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역사교육속에서 이 사실을 가르칠 것.

이렇게 하므로서만 일본은 이 죄로 부터 해방되어 진정한 도의를 갖춘 민주주의국가로 되는 것입니다.

한국여성계는 앞으로의 일본정부의 실천을 지켜볼 것입니다.

11월 30일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1990년 10월 17일

◎ 수신처 참조:국무총리, 외무부, 국회외무통일위원회, 평민당총재, 민자당총재, 민주당총재.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구세군대한본영여성사업부
 기독교대한감리회여성교회전국연합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여성교회전국연합회
 기독교루터교여성신도회전국연합회
 대한성공회어머니회
 대한예수교장로회여성전도회전국연합회(통합)
 한국기독교장로회여성신도회전국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회
 거창여성회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회
 대구여성회
 전북민주여성회
 제주여민회
 충남여민회
 부산여성회
 인천여성노동자회
 공해추방운동연합여성위원회
 기독교민회
 민족미술협의회여성미술연구회
 여성의전화
 주부아카데미협의회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한국여성연구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회여성위원회
 여성사회연구회
 한국가톨릭농민회여성부
 또하나의 문화
 두레방
 대한YWCA연합회
 서울지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아시아여성신학교육원
 이화여자대학교여성학연구회
 정신대연구회

공개서한

노태우대통령 귀하

우리는 지난 6월 6일 일본국회의 "참의원에 산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정신대 관련 질의응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차례의 질문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사회당의원 모토오카 쇼오지 (질): "강제연행중에 종군위안부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그렇다면 정부는 진상을 규명해라"

노동성직업안정국장인 정부위원 시미즈 (답): "징용대상 업무는 국가 총동원법에 기초한 업무이며 법률상 각호 열기 되어있는 업무와 종군위안부의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다."

"종군위안부에 관해서 옛날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니 민간업자들이 그러한 분들을 군과 함께 데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의 실태에 대해서 조사하여 결과를 낸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할수 없다."

정신대는 일본제국주의의 가장 잔인한 민족말살정책의 하나로 이땅의 여성들을 강제징집·연행하여 일본병사의 위안물로 이용한 역사상 유례없는 비인간적인 행위였습니다. 정신대로 끌려간 한국의 젊은 여성들은 하루에 수십명을 상대하다가 죽어갔는가 하면 일본의 패전으로 전쟁터에 버려지거나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집단학살의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소수지만 양심적인 증인들

과 생존자들에 의해 이미 밝혀진 사실들입니다. "천황"의 직속이었던 일본군의 요청에 의해 "조선인 여자 정신대"의 동원명령을 받고 제주도나 시모노세키등지에서 조선인 여성을 징용하는 업무를 맡았던 그 당시 노무보국회 동원책임자의 증언¹⁾이나 위안부의 성병검사를 담당한 군의관의 증언²⁾, 또 육군의 "위안소 규정"을 찍은 사진자료도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군위안부를 동원하는 업무가 징용의 대상업무에 포함되고 있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와같이 움직일수 없는 증거가 있고 이들의 혼이 아직도 원한에 사무쳐 떠돌고 있는데 36년간 한국의 모든 것을 착취해 가고도 모자라 이 땅의 딸들을 일본군의 성욕처리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된지 45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일본정부는 여기에 대해 추후의 반성도 없이 아직까지도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난 5.18 노태우 대통령 일본방문에 즈음하여 낸 여성계의 정신대 관련 성명서가 나온뒤에 이런발언이 일본의 공식입장으로 나온 것에 대해 우리정부는 무엇을 하는지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과연 자주적인 주권국가로서

註:1) 吉田清治 「朝鮮人慰安婦와 日本人」,新人物往來社, 1977年.
 同上「私の戦争犯罪」,三一書房, 1983年
 2) 麻生徹男氏の 証言
 金一勉編「戦争と人間の記録. 軍隊慰安婦」,現代史出版會, 1977年. 所收
 麻生徹男「花柳病積極的豫防法」,昭14年6月26日
 高崎隆治編,解説「軍醫官の戦場報告意見集」,不二出版,1990年. 所收添附資料参照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상호선린과 호혜평등에 입각해 있다면 어찌 작금에 이런 사태를 이 지경이 되도록 모르고 있었는지 혹시 알았다면 어찌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엄중히 묻습니다.

이에 우리여성들은 도저히 이 사실을 좌시할 수 없어 우리 정부에 항의하는 바이며 동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정신대란 이름하에 한국의 여성들을 전쟁 위안부로 짓밟았던 일본으로 부터 사죄를 받아내야 합니다.
2. 한국정부는 정신대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을 적극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3. 정부는 한국내에 위령비를 건립하고, 일본으로 부터 정신대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아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살아있으면 본인에게 보상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만일 사망했으면 희생자의 유가족을 찾아 보상해야 합니다.
4. 이것을 위해 그동안 불평등하고 다소 굴욕적으로 유지되어온 한·일 외교관계를 자주 평등 외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5. 정부는 일본의 우리역사에 대한 왜곡을 정정하게 하고 우리도 역시 정신대를 역사에 명기해야 합니다.

우리 여성계는 앞으로의 정부의 실천을 지켜볼 것입니다. 11월 30일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1990년 10월 17일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구세군대한본영여성사업부
 기독교대한감리회여성교회전국연합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여성교회전국연합회
 기독교루터교여성신도회전국연합회
 대한성공회어머니회
 대한예수교장로회여전도회전국연합회(통합)

한국여성단체연합
 거창여성회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회
 대구여성회
 전북민주여성회
 제주여민회
 충남여민회
 부산여성회
 인천여성노동자회
 공해추방운동연합여성위원회
 기독교여성회
 민족미술협의회여성미술연구회
 여성의전화
 주부아카데미협의회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여성연구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회여성위원회
 여성사회연구회
 한국가톨릭농민회여성부
 또하나의 문화

두레방
 대한YWCA연합회
 서울지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아시아여성신학교육원
 이화여자대학교여성학연구회
 정신대연구회

◎ 수신처 참조: 국무총리, 외무부, 국회의무통일위원회, 평민당총재, 민자당총재, 민주당총재.

대한민국
 의무부

아일 01254- 61720 720 - 2317 1990. 12. 14.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민원회신



1. 12.7 당부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한·일관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정부에 대한 충고에 사의를 표하는바입니다.
3. 우리정부는 지난 5월말 대통령각하 방일을 계기로 한·일양국간 과거사에 관련된 제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모든면에서 만족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아키히토 일왕의 과거사 사과발언, 제일한국인의 법적지위 개선등 어느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요청하신 종군위안부(정신대) 실태에 관하여 우리정부는 우선 대상명부 파악을 중시, 일제치하 강제징용자 명부(지금까지 일본정부는 징용자명부가 없다는 입장이었음)를 지난 5월 대통령 방일시 일본정부에 요구하였고 이에따라 일본정부는 6-7월에 걸쳐 일본각지에서 수집된 징용자 명부(8만여명분)의 목록(일본정부는 실제명부를 마이크로 필름화 하여 통보할 예정이고, 40여년이 지난 등 명부가 너무 낡아, 작업소요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고 하고있음)을 지난 8월초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통보에, 우리정부는 피징용자가 그 이상이 됨을 주장하면서, 일본정부에 계속 발굴하고 발굴되는대로 우리정부에 통보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 5. 또한 종군위안부에 대한 위령비 건립 문제는 위와같은 명부가 입수되는 단계에서 검토될 수 있다고 봅니다.
- 6. 그러나 일본정부에 대한 보상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체결로 양국 정부간에 국제법상의 권리.의무는 일단락된 사항이므로 정부차원에서는 대일 보상제기는 불가하며, 민간차원에 제기한 소송문제에 정부간 간여할 입장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7. 우리정부는, 이상과 같은 한.일양국간 과거사에서 기인하는 미진한 문제의 해결 및 21세기를 향한 아시아.태평양지역 내에서 주역으로 부상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수립을 위하여 귀하의 충고를 충분히 감안, 더욱 외교적노력을 경주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수신처 : 우편번호 100-00

서울시 중구 정동 1-23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 조화순 귀하

의 무 부 장

동북아1과장 전결

공개서한회신에 대한 재촉장

내각총리대신 가이후 도시끼 귀하

우리들은 지난 10월 17일 일본 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의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정부측에 발언에 대하여 항의의 공개서한을 보낸바 있습니다.

또 10월 29일에는 한국여성단체의 대표가 동경에 가고 그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일본의 국회의원 여성단체 개인들과 참의원 회관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들은 거기서 일본정부에 망언에 대하여 항의하고 하루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공식적인 사죄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요청 했습니다. 간담회가 끝난후에 우리들의 대표는 외무성을 방문하고 북동 아시아과의 과장을 통해서 직접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고 공개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귀국에 대하여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고 11월 30일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귀국에도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여 다시 한번 답변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답변이 없을 경우 우리는 정의와 인권을 위해 싸우는 전세계의 여성단체와 연대하고 일본정부에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만행에 대해 항의할 생각입니다. 신속한 답변을 주시도록 기대합니다. ■

1990. 12. 19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회 장 윤 정 옥